



Fatebenefratelli

호스피탤러티와 성덕

호스피탈리티와 성덕

로마 총본부 발행(2002)

한국 준관구

목 차

권두언	i
거룩하신 설립자와 그의 동료들	1
천주의 성 요한(1495-1550)	1
안톤 마르틴(1500-1553)	4
베드로 벨라스코(1512-1573?)	5
아빌라의 시몬(1506-1558)	6
도미닉 빼올라(1492-1573)	7
후안 가르시아(1499-1569)	8
또한 첫 5명의 수사 외에 기억할 분들	9
페르난도	9
마린 데 디오스	9
베드로 빼까도르	9
'양굴로'	10
성 요한 그란데(1546-1600)	10
성 베니딕도 메니(1841-1914)	12
성 리카르도 팜푸리	14
우리의 복자 형제들	15
톨레도에 있는 딸라베라 데 라 레이나 공동체	15
복자 프리모 마르띠네스 데 산 빈센트 가스펠로	16
복자 프레데릭 루비오 알바레스	16
복자 제롬 오쵸아 우르단가린	17
십자가의 요한 델가도 파스토스르 수사	17
깔라펠 (따라고나) 공동체	18
복자 줄리앙 까라스페르 포스	19
복자 브라울리오 마리아 꼬레즈 디아즈 데 세이로	19
복자 유세비우스 포르카데스 페라페	20

북자 콘스탄스 로카 휴게트	20
북자 베네딕트 요셉 라브레 마뇨소 곤잘레스	20
북자 빈센트 데 바울 까넬레스 비베아	21
북자 토마스 우르다노스 알디아스	21
북자 라파엘 플라마리케 슬리나스	22
북자 안토니 라우라도 파리시	22
북자 엠마뉴엘 로페스 오르바라	22
북자 이냐시오 떼헤로 몰리나	23
북자 헨리 벨뜨란 로르카	23
북자 도미닉 피따르크 구레아	23
북자 안토니 산치스 실베스트레	24
북자 엠마뉴엘 히메네스 살라도	24
스페인에서 순교한 콜롬비아 수사들	24
북자 헤수스 로페스 아귈라의 루벤	25
북자 아더 아알라 니뇨	26
북자 세레자 요한 발라스퀘스 뵐라에스	26
북자 유진 라미레스 살라사르	26
북자 스테판 마야 구띠에레스	26
북자 뵐치아데 라미레스 솔로아가	27
북자 가스빠르 빠에스 빠르도모	27
마드리드의 시옴포수엘로스 공동체	27
북자 윌리암 롱 가바	28
북자 요한 헤수스 아드라다스 곤살로	30
북자 끌레멘트 디아스 사하군	30
북자 라사루스 무기다 고이부루	31
북자 마르띠니아누 말레네스 산체스	31
북자 피터 마리아 알칼데 네그레도	31
북자 홀리안 플라사올라 아르폴라	32
북자 일라리안 텔가도 빌체스	32

복자 알칸따라 베르날떼 깔사도의 베드로	33
복자 요한 알칼데 알칼데	33
복자 이사도르 마르띠네즈 이스퀴에르도	34
복자 안젤로 싸스뜨레 꼬르뽀랄레스	34
복자 에드워드 바우띠스따 히메네스	34
복자 요셉 모라 벨라스꼬	35
복자 요셉 루이스 꾸에스타	35
복자 디에고 데 카디스 가르시아 몰리나	35
복자 로마누스 토우세다 페르난데스	36
복자 미카엘 루에다스 메기아스	37
복자 아더 도노소 뮤릴로	37
복자 헤수스 게스타 데 피페르	37
복자 안토니 마르띠네스 길-레오니스	38
복자 플라비우스 아르구에소 곤잘레스	38
복자 프란시스 아리아스 마르틴	38
복자 토비아 보라스 로메우	39
까라반첼 알또 공동체	40
복자 프로세소 루이스 까사레스	40
복자 끄리스띠누스 로까 우게트	41
복자 에우티무스 아라멘디아 가르시아	41
복자 까누테 프랑꼬 고메스	42
복자 도시떼우스 루비오 알론소	42
복자 케사르 니뇨 빠레즈	42
복자 벤자민 꼬보스 셀라다	43
복자 까르멜로 길 아라노	43
복자 꼬시모 부룬 아라라	43
복자 세실리우 로페스 로페스	44
복자 루피누스 라쉴라스 아이스꼬베	44
복자 파우스티누스 빌라누에바 이구알	44

로브레가트의 바르셀로나와 산 보이 공동체	45
바르셀로나의 아동 병원	45
로브레가트의 산 보이 정신 병원	45
복자 세레자 요한 에고스 쿠에자발	45
복자 알라칸파라 빌라누에바 라라이요스의 베드로	46
복자 아시스클루스 뻘나 뻘아수엘로스	46
복자 뻘로타시우스 꾸벨스 밍구엘	47
복자 요한 안토니 부로 마스	47
복자 프란시스 사비에르 폰사 까사라르크	48
까스틸리안 관구	48
산 라파엘 공동체	49
복자 곤살로 곤살로 곤살로	49
복자 니세포루스 살바도르 텔 리오	49
복자 하신포 오유엘로스 곤잘레스	50
가경자 프란시스 까마초 (1630-1698)	50
수도회의 하느님의 종들	52
하느님의 종 유스타스 쿠글러 (1867-1946)	52
하느님의 종 호세 올라로 발테스 (1820-1889)	54
하느님의 종 윌리엄 가농 (1905-1972)	56
만레사 공동체(바르셀로나)	58
하느님의 종 모리스 이니구에스 데 헤레디아 알소라	58
하느님의 종 루이스 벨트란 솔라 히메네스	59
시엠포수엘로스 공동체	59
하느님의 종 구아텐시오 이니구에스 데 헤레. 디아 알소라	59
마드리드의 산 라파엘 공동체	60
하느님의 종 트리니티 안드레스 라나스	60
깔라펠 공동체	60
하느님의 종 마태오 모린 라모스	60
발렌시아 공동체	61

하느님의 종 레온지오 로셀 라보리아	61
하느님의 종 제임스 오스카 발데스	61
하느님의 종 크리스토퍼 빼레스 델 바띠오	62
하느님의 종 레안드로 알로이 도메네크	62
하느님의 종 크루스 이바네스 로포스	62
하느님의 종 레오폴드 데 프란시스코 비오	63
하느님의 종 펠리시아노 마르티네스 그라네로	64
하느님의 종 후안 호세 오라옌 아이스꼬르베	64
하느님의 종 요셉 미카엘 빼냐로야 돌스	65
하느님의 종 뿌빌리오 페르난데스 곤잘레스	65
하느님의 종 아벨리노 마르띠네스 데 아렌사나 칸텔라	65
말라가 공동체	66
하느님의 종 실베스터 빼레스 라구나	66
하느님의 종 세쾰두스 빠스포르 가르시아	67
하느님의 종 발다사레 델 샤르코 오르퀘스	68
하느님의 종 고메르신도 산스 산스	68
하느님의 종 오노리오 발레스떼로스 로드리게스	69
하느님의 종 레이몬드 가르시아 모레노	69
하느님의 종 스파니슬라우스 델 게수 페냐 오헤아	69
하느님의 종 살루스띠아누스 알론소 안토니오	70

권 두 언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의 역사상 우리 보다 앞서 계셨던 형제들의 성덕을 증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 소책자를 여러분께 선사할 수 있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모두 개인적인 거룩함과 수도회와 교회의 거룩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형제들의 생애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기회를 주기에 수도회 형제들과 협조자들과 수도회의 친구들에게 있어 중요합니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신앙과 선의의 은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의심도 없이 바로 병자와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봉사한다는 이상에 있어서 경첩이 될 성덕에의 소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선 저는 이러한 분들에게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성화성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강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사회의 모든 영역 출신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매우 재능이 많았고 어떤 사람들은 덜하였습니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천수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입회하여 온전히 수도생활을 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매우 다양한 직업과 상황들을 겪은 후에 입회하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성소의 소명을 느꼈고 그들의 삶을 적절히 살았으며 영웅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주님의 도구라는 것을 느꼈고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써 말씀에 따른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느님 안에 자신들의 중심을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하였기에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증거는 병자와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

신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그리스도교 삶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말한 세례자 요한과 사도 바오로에 의해서 지적된 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천주의 요한이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천주의 요한은 개인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경험으로 시작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하였습니다. 그의 전기를 처음으로 쓴 사람은 그를 자선에 취한 사람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서 되돌아보았듯이 우리는 그 분 안에서 **성덕의 길, 참된 호스피탤러 영성**으로써 호스피탤러티의 육화를 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수도회의 5백년 역사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는 천주의 요한이 불을 붙였던 소명을 이루는 방법과 시대에 따라서 스스로 쇄신해나가는 전통에 맞추어 변화시킴으로써 그것이 살아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수도회, 회원들, 전통과 가깝게 있다고 느끼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에게, 교회는 이 3천년기 동안에 교회와 사회 모두를 위하여 새로운 동기으로써 부르고 있습니다. '새천년기 (Novo Mileneo Ineunte)'에, 교황성하께서는 **자선에 찬 삶**을 상상해보고 그를 현실화해 보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상상력과 필요한 갈망에 힘입어, 우리는 우리 수도회의 환경 내에서 혁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앞서신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말입니다. 그들이 하였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 시대에 이제 그들을 닮아가고 호스피탤러티를 위한 여지를 창출해 내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야기되었던 바를 듣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힘들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 오늘날 세계에서 교회의 위치, 우리의 수도회가 가고 있는 길, 우리 앞에 놓인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천주의 성 요한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우리가 카리즘에 따라 어떠한 길로 지나쳐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호스피탈리티에 봉헌된 삶을 위해 불리운 새로운 필요한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순교자들이고, 그중에 어떤 이들은 시성 되었습니다. 그들의 피가 고통받는 인간성의 이익과 복지를 위한 새로운 열매의 씨앗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과 천주의 요한의 호스피탈리티가 새로운 소명으로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을 믿도록 합시다.

파스쿠알 필레스
총장 수사

거룩하신 설립자와 그의 동료들

천주의 성 요한 (1495-1550)

천주의 성 요한은 포르투갈 몬떼모로노보(에보라에서 2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외아들이었다. 8세의 나이에 집을 떠나 고향에서 300 킬로미터나 떨어진 스페인의 오로빠사로 갔다. 그는 한 귀족의 농토를 관리하는 사람의 집에 입양 되어서 양치기가 되었다. 1521에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보병대에 들어갔다. 이 기간동안에 말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사형위기에 몰리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서 군대에서 추방되었다. 오로빠사로 돌아왔지만 4년뒤에 터키로부터 비엔나를 해방시키기 위해 파견된 군대에 오로빠사의 공작 장남의 수행원으로서 비엔나로 떠나게 되었다. 군대는 이탈리아를 지나서 비엔나가 보이는 곳까지 갔으나 터키군이 퇴각하여 찰츠 5세는 오스트리아 수도를 1532년에 입성하였다. 되돌아오는 길은 독일, 플란더스를 지나서 배로 라꼬루냐로 갔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으로 향하였고 그 곳에서 연세든 삼촌을 만나 그로부터 부모님의 죽음에 대하여 듣게 된다. 몬떼모로노보에서 같이 살자는 삼촌의 청을 사양하고 남쪽지방으로 내려가 세빌랴로 가서 일거리를 찾았는데 양치기를 하게 된다. 그는 오로빠사의 공작의 집에서 살 때 마구간의 말들은 잘 먹이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으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도 배고프고 헐벗고 홀대를 받는 것을 보면서 무척이나 안타까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요한아, 들판의 짐승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님의 가난한 이들을 보살핀다면 더 좋지 않을까 무어냐?” 한숨과 함께 소리질렀다, “나의 하느님, 제가 언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그리고 나서 그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세우따로가서 추방된 포르

투칼출신 가족을 위해서 도시의 요새에서 노동자로 일하였다. 여기서 그는 그의 동료 중에 하나가 무어족에게로 가버리자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 요한은 프란치스코회 신부에게 조언을 구하였고 그는 모로코를 떠나서 스페인으로 되돌아 가도록 충고하였다. 지브랄타에서 그는 책행상인이 되었고 마침내 그라나다에 정착하여 엘비라 성문근처에 책판매대를 열었다.

1538년 1월 20일, 성 세바스찬 축일에 성 아빌라의 요한의 강론을 들었다. 이 강론이 그에게 너무나도 와 닿아서 그의 전체 인생을 한순간에 바꾸어 버렸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소리지르며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였다. 땅바닥을 구르고 돌에다가 머리를 찢어 댔다. 도시를 달려갈 때 그는 이성을 상실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때리고 옷을 벗어던지며 자비를 소리쳐 청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아빌라의 요한에게 데려갔으며 그는 그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생애 남은 기간동안에 계속 이어질 관계가 시작되게 되었다. 요한이 다시 회심에 뒤이은 행동을 보여주어, 왕립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여기서 그는 정신질환자들이 묶여서 매를 맞는 것을 보았다. 그가 다른 환자들의 편을 들었기에 그에게 행해진 이러한 치료의 정도가 더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았다. 아빌라의 요한이 보낸 사람이 방문한 후에, 그의 행동은 변하였고 해결안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시간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받아들여 제가 바라는 대로 섬길 수 있는 병원을 갖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간호일을 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세심하고도 자애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며 얼마 있지 않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마땅히 받아야 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자신의 자선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하면서 그는 과달루페의 마리안 성지를 찾아 갔다. 그때 그는 그의 계획에 관해 상의하기 위해 바에사에 있던 아빌라의 요한 신부에게 갔다. 그라나다로 돌아올 때 그는 거렁뱅이들을 위한

작은 규모의 야간 쉼터를 열었다. 이는 나중에 좀 더 큰 장소들로 이전해 간다. 어느날 환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는 항상 관례적으로 이 일을 행했다.) 그는 그들 중의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았다. 그 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한아, 네가 가난한 사람들의 발을 씻겨줄 때, 내가 씻겨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가 후원을 얻으러 나갔을 때 (병자들을 돌볼 비용이 필요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외치면서 자선을 구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서 당신 자신에게 선한 일을 하십시오.” 뛰어난 주교는 그를 천주의 요한이라고 불렀고 그에게 일종의 수도복인 복장을 주었다. 이는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바지위로 덮는 형태의 기다란 셔츠와 거칠거칠한 짧은 케이프였다. 이것이 그의 첫 동료들에게 그가 주었던 복장이었다: 한때 양숙이었던 안톤 마르틴과 베드로 벨라스코. 더욱이 천주의 요한은 고멜레스 언덕 등성이에 한 건물을 얻게 되었다. 이 건물에 버려진 노인들, 순례객들, 병자들이 머물렀다. 이 시도는 19세기 초기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롬브로소가 “근대 병원의 창시”라고 지칭한 혁신적인 것이었다.

1549년 7월 3일에 그라나다 왕립병원에 화재가 났다. 그리고 환자들, 그 안에 갇히게 되었다. 아무도 선뜻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 그들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천주의 요한이 도착해서 주저함없이 불길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환자들을 구해내었다. 그들은 화상을 입었지만 안전하고 무사했다. 1550년 2월에 천주의 요한은 늑막염에 걸려있었는데 물에 빠진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 그라나다에서 불어나는 강에 뛰어들었다. 대주교는 그를 빼사 가족(그의 은인들 중 하나였다)의 집으로 데려가도록 명하였다. 여기서 사람들은 그가 다음과 같이 외치는 것을 들었다. “예수님, 예수님 저를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1550년 3월 8일에 요한은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는 옷을 갖추어 입고 손에 십자가를 쥐고 무릎을 꿇은 채로 선종하였다.

알렉산더 8세는 1690년 10월 16일에 그를 성인으로 선포하였다. 1886년에 병자들의 수호성인이 되었으며 1930년에 병자들을 간호하는 모든 사람들의 수호성인이 되었다. 그의 인품을 종합적으로 말해주는 것을 보겠다. (구띠에레 라쏘에게 보내는 편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사랑하는 내 형제여, 제가 악마와 세상과 육신에 맞설 힘과 함께, 겸손과 인내와 형제적 사랑을 부여받고 죄를 고백할 때 성실하고 고해 신부에게 순종하도록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저는 저 자신을 경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님만을 사랑하며 성 교회가 가르치는 바를 모두 믿고 실천하고 싶습니다.”)

안톤 마르틴 (1500-1553)

안톤 마르틴은 꾸엔카 지방 미라(스페인)에서 태어났다. 그는 둘째 아들이었으며,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농장의 노동자로서 일하였다. 어머니가 재혼했을 때 미라를 떠나서 사라센들에 대항하기 위해 세워진 탑들의 관리자로서 일하였다. 그 일을 그만두고 레게나에 있는 세관 직원으로 일하였다. 한편, 그의 형은 그라나다와 가까운 마을인 구아다오르뚜나에서 농장 일꾼으로 일하였는데 자신이 일하는 곳 지주의 총애하는 일꾼이 되었다. 이 젊은이는 부자 주인의 딸과 사랑에 빠져 약혼하였다. 그런데 한 교구 사제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젊은이에게 지주의 딸대신 자신의 딸에게 청혼하도록 부추겼다. 부자 가족은 이를 자신 집안에 대한 모욕이라고 여겼는데 어느날 이 젊은이의 시신이 도랑에서 거의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발견되었다.

안톤 마르틴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이 일하던 곳을 떠나 그라나다로 가서 살인자가 베드로 벨라스코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버림받은 여성의 오빠였다. 안톤은 베드로를 법정에 고발하였다. 이로 인해 벨라스코는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벨라스코가는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 재판을 연기하고 있었고, 재판

이 벌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마르틴은 창녀들을 보호해 주는 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천주의 요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안톤 마르틴을 만났다. 요한은 안톤 마르틴에게 심지어 자신의 병원을 위한 돈을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천주의 요한은 매번 안톤에게 소송을 포기해달라고 간청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우연히 천주의 요한은 그를 만나게 되었다. 요한은 안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들고 말하였다. “그분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원수를 용서해야만 합니다.” 안톤은 천주의 요한의 말과 행동에 크게 깨달아 죄수의 석방을 주청하게 되었다. 안톤 마르틴은 천주의 요한에게 그의 일을 도와줄 수 있게 받아주라고 청하였고 근대 병원의 선구자 대열에 끼는 요한의 추종자가 되었다.

머리를 깎고 맨발로 다니며 뛰이 주교가 선사한 복장을 입고서, 안톤 마르틴은 어깨로 병자를 둘러매고 다녔고, 자선을 구하고, 금식하고 참회를 하였으며 천주의 요한이 여행을 갈 때 그를 대신해서 일을 하였고 천주의 요한이 돌아가신 후에 그의 후계자가 되었다. 1552년에 그라나다에 새로운 천주의 성 요한 병원의 문을 열었으며 첫 회헌이 효력을 갖도록 하였다. 그는 마드리드의 궁정으로부터 그곳에서 신성한 사랑이신 성모의 병원을 세울 땅을 제공받았다. 안톤 마르틴은 1553년 12월 24일 마드리드에서 숨을 거두었다.

베드로 벨라스코 (1512-1573?)

베드로 벨라스코는 구아다오르뚜나(그라나다)에서 태어났다. 그는 부유한 가정의 장남이었고 이에 따라 가문의 목축 자산의 소유주로 앞날을 보장받고 있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때 쯤, 안톤 마르틴의 형이 나타났고, 안톤 마르틴의 간단한 전기에서 나와있는 바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1538년 살인사건 후로, 베드로 벨라스코는 도망을 갔지만 발견되어, 체포되었고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족들은 영향력을 발휘하여 소송을 기각시키려 하였지만

안톤 마르틴이 사형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였다.

천주의 성 요한의 중재와 안톤 마르틴의 회심으로 인해서 벨라스코에 대한 고소가 취하되었고 그 뒤에 우리가 들은 바로는 베드로가 안톤 마르틴과 같이 천주의 요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맡은 일은 자선금을 모으고, 먹을 것들을 구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었다. 그는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한 번은 천주의 요한이 안달루시아 지방으로 자선금을 구하기 위한 여행에 따라간 적이 있었고, 또 같은 목적으로 카스텔라로 요한을 수행하러 갔다. 그 때 그는 천주의 요한이 그라나다에 있는 병원을 위해서 모금한 돈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에 대해 불평하였고 천주의 요한은 대답하였다: “우리가 어떤 필요를 만날 때 마다 우리는 도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선금을 여기서 주든 그라나다에서 주든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나 계신 하느님을 위해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땅바닥에서 잠을 잤으며 큰 참회를 하였고 자신이 저지른 잔인한 범죄에 대해서 하느님께 자비와 용서를 간청하였다.

베드로는 천주의 요한과 함께 루체나 거리의 작은 호스텔로부터 고멜레스 비탈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갔다. 후에 그 병원은 산 헤로니모 거리로 옮겨갔다. 그가 선종한 날은 1572년(혹은 그 후가 될 수도 있다)이었다. 어느 해가 되었든 간에 그가 죽은 후에 장엄한 장례식이 치뤄졌고 오늘날 천주의 요한 병원이라고 불리우는 그라나다 병원의 수도원에 묻혔다.

아빌라의 시몬 (1506-1558)

아빌라의 시몬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직업도 없이 놀이와 도박에 빠져 지내고 있었다. 그는 매우 꼬치꼬치 캐묻기를 좋아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는데 그 사람들을 홍보고 비웃기 위함이었다. 그의 희생자 중에 하나가 천주의 요한이

었으며 요한이 노인과 병자들의 집을 방문할 때, 특히 도움을 청하는 가난한 여인들을 찾아갈 때 몰래 그의 뒤를 밟았다. 그리고 천주의 요한이 자선을 청하러 갈 때 마다 그를 미행했다.

한번은 요한이 가난한 과부와 그녀의 두 자녀를 방문하러 갈 때였다. 그들은 방 한 칸에 살고 있었으며 안뜰로 문이 열려 있었다. 요한은 그들에게 다섯 덩어리의 빵과 기름 한 병을 가져다 주었다. 아빌라의 시몬은 안뜰로 살금살금 들어가서 천주의 요한이 하는 일을 몰래 엿보았다. 그런데 그는 그가 저지른 죄악들이 벽에 짙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이에 몹시 놀랐다. 시몬은 기절해 버렸고 천주의 요한이 그의 이마와 가슴에 성호를 그어주자 정신을 차렸다. 그는 자신이 천주의 요한에게 몹시도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지어 그는 요한을 정의의 궁정 분수에 밀어 넣기도 한 적이 있었다.

시몬은 그의 과거의 부끄러운 생활로부터 회심하게 되었고 루체나 호스텔에 나와서, 천주의 요한의 용서를 간청하였고, 무릎을 꿇고 천주의 요한의 동료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청하였다. 천주의 요한은 시몬에게서 많은 선함을 보았고 그를 신뢰하여 많은 일을 맡겼다. 아빌라의 시몬은 호스피탈리티에 헌신한 기나긴 삶을 보내면서 1558년에 선종하였다.

도미니크 베올라 (1492-1573)

도미니크 베올라는 제노아(이탈리아)에서 태어났다. 그는 스페인산 생산품, 가죽, 벨벳, 은을 주로 취급하는 상인이었다. 그는 업무상 스페인으로 가게 되었고 그라나다에 사업체를 열었다. 그곳은 예술품 거래의 큰 중심지였다. 여기서 그는 영향력있는 가문 출신의 한 젊은 부유한 여성과 결혼하였고 곧 그는 그 도시에서 가장 성공적인 상인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는 결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지는 않았으며 고리대금을 하는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 다음

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한 것이다: “이 도시는 크고 겨울은 매섭게 춥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이 이 곳 하느님의 집으로 모여듭니다. 병자들, 건강한 자들, 부랑자들 및 그들을 돌보아 주는 자들을 합하면 백 명하고도 열명이 넘습니다. 불구자, 팔다리가 없는 자, 나환자, 귀머거리, 정신질환자, 중풍병자, 백선병자, 그리고 그밖에도 노인들과 버려진 아이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천주의 요한은 자신이 빛이 많이 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도미니크 뻘올라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에게 많은 돈을 청하게 된다. 상인은 대답하였다: “종소 천주의 요한 형제, 하지만 누가 당신에게 빌려주는 빛의 보증을 설 것이요?” 대답으로 요한은 옷 속에서 아기 예수님의 상을 꺼냈다. “내 친애하는 형제여, 여기 내 보증인으로 그 분께서 서 있소.” 도미니크 뻘올라는 요청한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을 내어주었고 돌려 달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뻘올라는 경제적인 원조를 해주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환자들을 도왔다. 후에 뻘올라의 아내가 죽고 나서 그는 자신의 사업체를 정리하고 천주의 요한에게 주었다. 그는 또한 형제들이 입고 있던 복장을 주도록 요청했고 1542년에 그들의 동료로 들어갔다. 뛰어난 조직가이기도 했던 도미니크는 후원금을 모으는데 특히나 뛰어났다. 이제 그는 남루하고 거친 형제들의 옷을 입고 다니며 부자들과 도시의 유명한 사람들 집에서 환영받았다. 그의 어깨에 짊어진 바구니에 그는 많은 자선금을 모았다. 그는 병원의 원장이 되었으며 1573년에 선종하였다.

후안 가르시아 (1499-1569)

후안 가르시아는 구아다오르뚜나(그라나다)에서 비교적 유복하게 여겨지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천주의 요한 형제의 첫 무리에 들어갔고 고행과 병자들에 대한 봉사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맨발로 다녔고 머리를 깎았다. 목주만을 지닌 채 수련을 위하여 바닥에

서 왔다. 그는 병자의 침대맡에서 기도를 하였다. 요한 가르시아 형제는 안톤 마르틴이 원장이었을 때 간호의 장을 맡았고 후에 그가 자리에 없을 때 그의 일을 대신하였다. 나중에 그는 원장이 되었고 걸출한 형제들에게 수도복을 주었다. 그들 중에는 로드리고 데 시구엔사, 세바스찬 아리아스, 베드로 소리아노, 펠쵸 데 로스 레이예스, 프루토스 데 산 베드로가 있었다. 그는 70세의 나이에 눈을 감았으며 그라나다의 병원 성당에 묻혔다.

또한 첫 5명의 수사 외에 기억할 분들:

페르난도

(성은 기록되지 않았다) 천주의 성 요한이 1548년에 그를 톨레도로 보내서 페르난도 병원이라고 불리우는 병원을 설립케 했다. 그는 마치 천주의 성 요한과 같았고 그와 비슷한 복장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린 데 디오스

후안 마린으로 알려짐. 거룩하였던 분으로 유명하며 1570년에 꼬르도바 병원을 설립하였다.

베드로 베가도르

그는 1500년에 태어나서 18세의 나이에 은수자로 살기위해 집을 떠났다. 1540년에 로마로 순례여행을 갔다가 한 유대인을 만났는데 베드로의 인도로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설립한 공동체에 그를 받아들였다. 스페인으로 되돌아와서 베드로는 산타 꼬루즈라는 병원을 열었다. 그는 또한 말라가, 안페페라, 아르코스 데 라

프론페라, 그리고 론다 등에서 다른 병원들을 열었다. 1570년에 베드로는 그라나다로 가서 천주의 요한 수사들과 그의 병원을 알게 되었다. 그는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천주의 요한 수도회에 들어가기를 청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이미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드리드로 가서 모금활동을 하였다. 그는 한 귀족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병이 들어 선종하였다. 그의 시신은 그라나다로 모셔져와 안장되었다.

‘앙굴로’

(후안 데 아빌라)는 천주의 요한이 크게 신뢰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결혼하여 가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천주의 요한과 매우 가깝게 지냈다. 그의 첫 동료들로 간주될만한 가치가 있다. 앙굴로는 1583년에 임종하였고 그라나다의 성 후스토와 빠스포르 성당에 묻혔다.

성 요한 그란데 (1546-1600)

까르모나(스페인)에서 태어났으며, 7형제 중 둘째였다. 그는 그의 나이 11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교구 학교에 다녔다. 그는 세빌라로 가서 직물 상인의 견습생이 되었다. 그는 후에 까르모나로 돌아와서 자신의 가게를 열었다. 1566에 그는 헤레스 데 라 프론페라로 가서 병이 들어 치유의 성모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이 일이 있기 2년 전에 마르체나의 성지에서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정결과 가난의 서원을 하였고 가난한 이와 병자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였다. 그는 삼베 자루로 만든 옷을 입고 맨발로 다녔으며 자신을 후안 빠까도르라고 불렀다.(죄인 요한) 그 다음해에 헤레스에서 마을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돌보았다.

1567에 그는 산 후안 라페란 병원을 책임을 맡으라는 요청을 받았다. 1572년에 칸델로라의 성모병원을 세우기 시작했으며 3년

후에 산 세바스찬의 진료소와 합병하여서 효율적인 일반 병원이 되었다. 2년 전에 요한 그란데 수사는 그라나다로 가서 천주의 요한 수도회로 들어가려고 하였다.(이는 1571년 회합에서 승인이 되었다.) 그는 수도회에 받아들여졌고, 헤레스에 있던 그의 동료들도 받아들여졌다. 그는 헤레스로 돌아가서 수련소를 열었다. 1580년과 1590년 사이에 요한 그란데는 메디나 시도니아, 아르코스 데 라 폰페라, 빌라마르틴, 그리고 산루까 데 바라메다 (여기서 그는 병원 제도를 개혁한다)에서 병원을 열었다. 세빌라의 대주교의 요청으로 그는 이 개혁을 또한 헤레스에서 잘 이끌었다. 1596년에 영국인에 의한 점령으로부터 피해온 난민들을 위한 숙식을 조직하였다. 1599에 산타 마리아 항구에 있던 산타 루시아 병원의 원장으로서 그의 수사들 중의 한 명을 임명하였다. 1599년에 흑사병이 돌았다. (1574년으로 돌아가보면 요한은 헤레스에서 흑사병과의 싸움을 이끌었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또다시 전쟁을 하게 된다. 그는 이 끔찍한 질병의 희생자로서 그의 생명을 하느님께 봉헌하였다. 그가 흑사병으로 죽음에 이르는 크나큰 고통 후 일주일 뒤에 그는 급히 병원 정원에 묻혔다.

요한 그란데는 1853년에 복자품을 받았고 1986년에 헤레스 교구의 수호성인으로 지정되었다. 1996년 6월 2일 성인으로 선포되었다. 오늘날 그의 유해는 수도회의 헤레스 병원의 성당 유해소에 모셔져 있다. 회복하기 위해 지낼 곳을 찾지 못해 길거리에서 죽어가던 버려진 병자들을 돌보아 주던 16세기 후반에 걸출한 성품을 가진 인물이었다. 자신만의 수도회를 만드는 것 대신에 그는 천주의 요한 수도회에 함께 하기를 원하였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수도회로 들어갔다. 그는 다음과 같은 것을 원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모든 종류의 질병들로 고통받는 병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어디에서든 치료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각 병자들에게 개별 병상을 갖도록 해야 하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의사의 진료와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죽는다.”

성 베네딕도 메니 (1841-1914)

에르콜레 메니는 밀란(이탈리아)에서 상당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은행에 취직했지만 은행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정들을 보고 곧 그만두었다. 1859년 전쟁시 중앙역에서 부상자를 나르는 자원봉사의 일을 했다. 여기서 그는 마젠타 전쟁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받고 있는 천주의 성 요한 수사들을 만났다. 1860년에 그는 수도회에서 받아들여주길 청하였고 베네딕도라는 이름을 취하였다.

베네딕도는 사제 양성에 뽑혀서 로디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또한 그 곳 병원에서 일했다. 1864년에 서원을 하였으며 일년 후 기제페 마리아 알피에리 총장 수사의 부름을 받고 로마로 갔다. 1866년 10월 14일에 베네딕도는 사제 서품을 받았고 총장의 비서로서 로마에 잠시 머물렀다. 다음해인 1월 14일에, 알피에리는 젊은 사제인 베네딕도를 교황 비오 9세에게 알현시켰고 교황은 그에게 말했다: “스페인으로 가라 내 아들이 천국의 축복이 함께 하여 호스피탈러 수도회의 탄생지인 그 곳에서 다시 수도회를 부흥시켜라.”

베네딕도는 즉시 떠났다. 리용과 마르세유를 거쳐, 바르셀로나에 1864년 12월 14일에 도착하였고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위한 12개 병상을 갖춘 병원을 세웠다. 1873년에 스페인의 정치적 상황이 악화되어 베네딕도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 그는 마르세유로 피신했고 여기에서 카를로스 전쟁(1873-1876)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스페인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다. 같은 해에 그는 마드리드로 가서 수도에서 30킬로미터 떨어진 시엠포수엘로스에서 큰 토지를 구입했다. 그는 시엠포수엘로스에서 1877년에 큰 정신병원을 세웠으며 1877년에 그곳으로 수련소를 옮겼다. 시엠포수엘로스는 부흥한 스페인 관구의 모원이 되었고, 여기는 그 당시 지배적이었던

반성직자 법의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 자선 형제회라고 불리우는 간호 협회의 산하에 있었다.

1878에 베네딕도는 그라나다에서 천주의 성 요한 대성당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그 해 그라나다에서 그는 두 명의 독실한 여성들을 만났는데 이름은 마리아 호세파 레시오와 마리아 안구스티아스 기메네스였다. 그들은 베네딕도 메니와 함께 예수 성심의 호스피탤러 수녀회의 공동 설립자가 되었다. 이 수녀님들은 정신질환 여성들을 돌보는데 헌신하였다. 1882년 5월 1일에 첫 환자를 받았다. 메니 수사는, 그라나다 병원을 개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세빌레, 말라가, 지브랄타, 마드리드, 까라반첼 알토, 과달라하라(멕시코), 리스본과 텔할(포르투갈)에 병원을 만들었다. 1903년에 그는 일련의 병원들을 천주의 요한 수도회가 운영하도록 맡기고 떠나서 호스피탤러 수녀회를 굳건히 하기 위하여 헌신하기 시작했다.

1909년에 베네딕도는 교황성하로부터 호스피탤러 수도회에 교황과견시찰관(Apostolic Visitor)직에 임명되었고 1911년에 총장수사가 되었다. 그 다음해에 그는 사임하였고 파리에서 지내려고 갔다. 하지만 뇌졸중으로 고통을 받은 후에 디낭으로 옮겨졌고 여기서 1914년 4월 24일에 선종하였다. 그의 시신은 스페인 시엠포수엘로스로 옮겨졌다. 베네딕도 메니는 1985년 6월 23일에 시복이 되었고 1999년 11월 21일 성인으로 선포되었다.

베네딕도 메니의 삶은 전염병과의 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부상당한 사람을 돌보는 것까지 호스피탤러티의 살아있는 메시지였다. 그는 현대 정신과 케어의 선구자였다. 그는 또한 과거에 적대적 정부에 의해서 억압받아왔던 여러 나라에서 호스피탤러 수도회를 지칠 줄 모르며 부흥시켰던 인물이었다. 그는 호스피탤러 수녀회의 설립자였고 전문적이고도 인간적인 서비스의 성장과 향상에 헌신하였다. 그의 성덕은 특히 그의 인생 마지막 20년간에 나타나는데 이때 그는 그릇된 비난에 접하여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말로 끝맺고자 한다: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세상은 추방지, 폐허,

감옥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이 아픔과 고통, 시련, 억압과 구속을 가장 큰 선으로 바꾸어 놓는다.”

성 리카르도 팜푸리

에르밀리오 팜푸리는 파비아라는 도시(이탈리아)에서 12킬로미터 떨어진 트리볼지오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가난한 가정의 11명의 자녀 중 10번째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3살때 돌아가시고 그의 아버지는 11살때 돌아가셨다. 그는 외삼촌집에 맡겨졌다. 그의 외삼촌 카를로는 트리볼지오 마을 의사였다. 에르밀리오의 가까운 초등학교에 다녔고 파비아로 가서 중등교육을 마쳤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는 파비아 대학 의과대에 들어갔다. 1912년에 그의 누이인 마리우시아가 프란치스코 수녀가 되었고 수도명을 룡지나라고 하였다. 그로부터 오누이는 종교적인 문제들을 논하는 기나긴 교류를 하게 된다.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팜푸리는 1917년에 군대에 소집되게 된다. 그의 형제들 중 하나가 1916년 전선에서 쓰러졌고 이제 그가 의료부대의 상등병으로 보내어 졌다. 여기서 그는 카포레토로부터 퇴각하는 동안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었다. 여기서 그는 홀로 남겨졌었다. 혼자 힘으로 그는 모든 의료장비를 소가 끄는 짐마차에 다 싣고 구해내었다. 이틀 후에 그는 타글리아먼트에 도착하였고 그의 부대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 용감한 행동으로 그는 동으로 된 훈장을 수여받게 된다.

불행히도 이러한 모든 노력이 그의 건강을 해쳤고 그는 늑막염에 걸렸는데 이것이 폐렴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0년 뒤 이러한 상처가 그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 1922년에 그는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모리몬도의 마을 의사가 되었고 거기서 1927년까지 머물렀다. 마을 의사로서 그는 병자들을 무료로 방문하였고;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돌보았다. 종종 무료로 약을 주었고 그의 보수로 남는 것

이 거의 없었다. 그는 일종의 젊은이들을 위한 활동 단체를 설립하였고 비오 5세의 음악단이라고 불리우는 지방 브라스 밴드의 후원자였다. 그는 의료인 조합을 지배하고 있던 파시스트와도 싸웠다. 그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구와 선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는 호스피텔리 수도회에 들어가서 리카르도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어린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는 항상 자선의 크나큰 성향을 항상 보여주었다. 10월 24일에 서원을 하였고 브레스치아에 있는 수도회의 산타 오르솔라 병원에서 무료 치과진료소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의 건강은 악화되었고 그는 1930년 5월 1일 밀란에서 선종하였다. 그의 나이 고작 32세였다. 그는 1981년에 시복되었고 1989년 11월 1일 시성되었다.

리카르도 팜푸리는 항구적이고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는 모범적인 마을 의사였다. 또한 그는 학생시절과 1차 세계대전 당시 의료부대시절 동안에도 그러하였다. 그는 자신의 소임을 진정으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였다. 그는 수도복을 입은 겸손한 치과의사였고 항상 그리스도교 가치를 옹호하였다. 죽기 바로 전 그는 그의 누이에게 편지를 쓴다: “저는 오로지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싶습니다.”

우리의 복자 형제들

폴레도에 있는 팔라베라 데 라 테이나 공동체

1935년 딸라베라 데 라 레이나에서 있는 사도학교가 최근에 문을 열었다. 이 사도학교에는 호스피탈러 수도회의 4명의 수사와 30명의 지원자가 있었는데 1935년 7월 23일 운명의 날에 그 중 8명이 학교로 많은 수의 무장한 공화국 군대가 쳐들어 왔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 그들은 수사들을 모욕하고 위협하였고 이틀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체포하였다. 7월 25일에 수사들은 비토리아 극장에서 심문을 받았다. 그리고나서 화물차 뒷칸에 실려서 딸라베라 외곽으로 끌려가서 처참하게도 총살당했다. 그들의 유해는 마드리드의 시엠포수엘로스에 있는 천주의 성 요한 성당에 안장되어 모셔져 있다. 그들은 1992년 7월 25일에 시복되었고 그들의 전례 축일은 7월 30일이다.

복자 프리모 마르띠네스 데 산 빈센트 가스펠로

딸라베라 공동체의 수도원장이었다. 1869년 그는 산 로만 데 캄페소(알바라)에서 태어났다. 그는 1885년 호스피탈러 수도회에 들어와서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스페인과 멕시코 병원에서 정신질환자와 학습장애아들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그는 총에 맞은 후 바로 즉사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으며 병원에서 몇 시간을 더 생명을 유지하다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가르멜의 우리 성모님 저에게 자비를 내리소서. 주님 제가 그들을 용서 하듯이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는 67세의 나이였다.

복자 프레데릭 루비오 알바레스

그는 사도 학교 성당의 신부였다. 그는 베나비데스 데 오르비고(레온)에서 1862년에 태어났다. 19세의 나이에 그는 수도회에 들어가서 1886년에 서원하였다. 그는 3년간을 로마에 있는 그레고리안 대학교에 다녔고 1899년 사제로 서품받았다. 그는 지브랄타, 그라나다, 마드리드 산 라파엘에서 수도회 병원의 원장으로서 일하였다. 그는 또한 시엠포수엘로스와 딸라베라에서 수련장, 관구장, 사제의 일

을 하였다. 그가 심문을 받을 때 대답하였다: “내 이름은 프레데릭이고 나는 사제이다.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르지 모르기에 미사를 올리기 위해서 성체를 모시고 왔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성체를 모시는 성함을 공화국 군인들에게 보여주었다. 군인들 중에 하나가 그를 총머리로 때리면서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을 위한 성체를 가져왔다. 그것들은 내 총 총신에 들어 있다.” 우리가 그것들을 곧 너에게 줄 것이다. 그는 74세의 나이였다.

복자 제롬 오초아 우르단가린

그는 1904년 고니(나바라)에서 태어났고 수도회에 1921년에 입회하였다. 그가 체포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와 목줄을 빼앗아 길바닥에 버렸다. 그와 다른 동료 수사들은 마을 광장으로 끌려갔고 주먹을 쥐고 경례를 붙이며 '공산주의 만세'를 외치도록 위협당했다. 네 명의 수사가 거절하였고 제롬 수사가 큰 목소리로 외쳤다. “왕이신 그리스도님 만세. 스페인 만세.” 그는 모욕을 받고 구타를 당했으며 그의 팔이 부러졌다. 그리고 나서 그와 다른 수사들은 총살을 당했다. 그의 나이 32세였다.

십자가의 요한 델가도 팍스토스르 수사

그는 1914년 뿌엘블라 데 알꼬세르 (바다호즈)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1929년 수도회의 사도학교에 들어갔다. 1932년 첫 서원한 후에 그는 사도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가 체포되기 전날에 그는 학생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총성소리를 들었다. 십자가의 요한 수사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의 생명을 행복한 마음으로 드릴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여러 발의 총을 맞고도 그의 목숨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으며 다리 가까운 데까지 몸을 이끌고 피해서 몇몇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들이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그는 숨을 거두었다. 그의 나이

22세였다.

깔라펠 (따라고나) 공동체

깔라펠의 천주의 성 요한 요양소는 아동 병원이었고 이 공동체에 또한 수많은 수련자들이 있었다. 마을의 교구 성당은 더럽혀졌고 1936년 7월 22일 불에 탔다. 군대는 23일에 요양소에 왔고 그 다음날 새로운 운영자들과 함께 되돌아 왔다. 그들은 수사들에게 “수도복을 벗어라. 어느 누구도 수도복을 입어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는 여기서 평등하다고 말하였다.” 수사들은 다음날까지 밤낮으로 기도하고 미사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아침 8시였다. 그들은 열쇠를 그들에게 넘기고 요양소를 운영하는 것은 끝이 났다.

25일에 미사가 없었고 아이들은 잠에서 깨어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하느님은 없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이 답해야 했다. “공산주의 만세.” 수사들은 27일과 그 다음날 3시경 몰래 성체 성사를 모실 수 있었다. 군대가 그 다음날 한 첫 번째 일은 모든 미사 제구들을 없애며 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이 왔다.” 그들은 다음날인 29일에 그들을 놓아주고 바르셀로나로 갈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브라울리오 수사는 30일에 미사를 드리는 동안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곧, 아주 곧, 우리는 베일에 가리지 않은 그리스도님을 만날 수 있는 형언할 수 없는 행운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마지막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줄 이러한 순간에 용기를 갖고 순교를 할 준비를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교를 할 수 있는 빛과 생명과 힘을 주십니다.” 예언적 말이었다. 8명의 수사들은 병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되돌아가도록 했고 4명은 너무나 어려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15명의 다른 형제들은 마을 바깥으로 끌려가서 총살을 당했다. 그들은 쓰러지면서 소리쳤다. “왕이신 그리스도님 만세!” 7월 30일 저녁 5시였다. 그들의 유해는 수도회 병원 성당인 산 보이에 안장되었다. 1992년 10월 25일 시복되었고 그들

의 전례 축일은 7월 30일이다.

복자 줄리앙 까라스귀르 포스

그는 공동체 수도원장이었다. 1881년 수에까(발렌시아)에서 태어났고 1917년 수도회에 입회하였다. 그는 발렌시아 원장으로서 일하였고 콜롬비아에서 깔라펠 원장으로 임명되어 병원이 점령되기 한 달 전에 이곳에 도착하였다. 군대가 점령하여 엄청난 모욕을 그에게 퍼부었음에도 그는 전혀 적대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수련자들을 고향에 보내어 그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였다. 수사들이 트럭 위로 실려가서 성 빈센트 역으로 갔을 때, 그는 성모송을 암송하였다. 그는 트럭이 멈추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트럭에서 내리는 것을 도우며 말하였다. “이제 함께 갑시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고 그들은 그의 머리에 총을 쏘았다. 그의 나이 55세였다.

복자 브라울리오 마리아 꼬레스 디아즈 데 세리오

그는 수련장이고 관구 평의원이었다. 그는 13세의 나이로 시앰포수 엘로스에 있는 수도회의 사도학교에 들어갔다. 서원을 1916년에 했고 뒤이어 사제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1922년에 서품을 받았다. 브라울리오는 수련장으로서 1931년에 까라반첼에 갔다. 그리고 여전히 그 직무를 맡고 있는 채로 그는 깔라펠에 갔다. 그 어려운 시기에 그는 수련자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애썼고 항상 그들 옆에서 그들이 다가올 시련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얻도록 도왔고 지지했다: “우리의 성 라파엘 관구는 수도회의 역사에 영광스러운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다.”

그들이 병원에서 끌려나올 때 그는 앞장을 섰고 깔라펠 기차역으로 갈 트럭 뒤에 실렸다: “여러분들의 죄를 사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그는 그들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그들의 살인자를 용서해 달라고 청하였다. 그

는 두 손을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39세였다.

복자 유세비우스 포르카데스 페락떼

그는 레우스(따라고나)에서 1875년에 태어났다. 그는 1899년에 수도회에 입회하였다. 그리고 멕시코에 가서 호스피탈러로서 생활하였다. 여기서 그는 12년간 헌신하였고 스페인으로 돌아와서 24년을 더 일하였다. 그는 깔라펠 병원의 린넨실에서 열심히 일하였다. 그가 집중 총알 세례를 받았을 때 그는 트럭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그는 쓰러졌지만 아직 살아있어서 군대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노인은 아직도 죽지 않았다; 아마 목숨이 7개나 되는가보다.” 그의 나이 61세였다.

복자 콘스탄스 로까 휴게트

그는 바르셀로나 산 사두르니 데 노야에서 1895년에 태어났고 수도회에 1910년에 들어왔다. 그는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마드리드(근로자 병원), 산 보이, 그리고 칠레에 있는 수도회의 세 병원의 공동체에서 일하였다. 그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수도회의 아동병원에서 아이들을 데려왔기에 잠시 동안 깔라펠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그는 엄한 선생님이었기에 아이들 중에 몇 명이 군대에 고발하였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일행에서 그를 끌어내어 맨 앞장서 걷게 하였다. 그는 팔짱을 끼고 의연하게 앞으로 걸어갔지만 몇 발자국 가지 않아서 등에 총을 맞았다. 그의 나이 41세였다.

복자 베네딕도 요셉 라브레 마뇨소 곤잘레스

그는 1879년 라모비에호(발라돌리드)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3년 수도회에 들어갔고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그라나다, 발렌시아, 산타

아구에다, 산 보이, 그리고 깔라펠에 있는 공동체에서 일하였다. 다른 수사들과 함께 병원에서 끌려 나와 벤드렐 중앙광장으로 갔을 때 그는 교구 성당이 더럽혀 지는 것을 보았다. 베네딕도는 소리쳤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만세”, 그리하여 그에게 모욕과 매질이 가해졌다. 전체 무리가 일렬로 서서 총을 맞았을 때 베네딕도 형제는 일제 사격이 가해질 때까지 계속 서 있었으며 팔을 벌렸다. 군대 장교는 사형집행대에게 명령하였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만세라고 외친 사람을 표적으로 하라.” 그들은 그가 쓰러질 때까지 총을 쏘았다. 그의 나이 57세였다.

복자 빈센트 데 바울 까넬레스 비베아

그는 1894년 온다(가스펠론)에서 태어났다. 의무부대에서 군복무를 마쳤을 때 그는 그의 부모에게 말하였다: “이제 결혼해도 될 나이가 되었으나 나는 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는 24세 때 가르멜회에 입회하였으나 1926년에 호스피탈리 수도회로 교회법에 의거한 허락을 받아 들어갔다. 그는 마드리드, 발렌시아, 만레사, 바르셀로나에서 일하였다. 그는 군대가 병원으로 들이닥쳤을 때 깔라펠에서 며칠 머무르고 있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곳에 있는 공동체와 같은 운명을 겪었다. 그가 총살당했을 때 42세였다.

복자 토마스 우르다노스 알디아스

그는 나바라 에카리에서 1903년에 태어났다. 그는 군대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보냈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서 어머니와 싸웠고 어머니는 그를 집에서 쫓아내버렸다. 그는 이 마을 저 마을로 떠돌아다녔고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마음을 바꾸어서 그는 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병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었고 1935년에 수도회에 들어왔다. 총살대에 끌려갈 그 당시에 그는 수련자였다. 십자가 모양으로

팔을 두르고 그는 총살대에게 소리질렀다: “왕이신 그리스도님 만세.” 그의 나이 33세였다.

복자 락파엘 플라마리께 슬리나스

그는 멘디빌(나바라)에서 1903년에 12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그들 중 두 명이 입양되었다. 그는 고향에서 병자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1935년에 수도회에 들어왔다. 그가 죽을 때 그는 수련자였으며 다음과 같이 외쳤다: “왕이신 그리스도님 만세” 그리고 그의 살인자들의 용서를 청하였다.

복자 안토니 락우라도 파리시

그는 1910년 레우스(따라고나)에서 태어났다. 그는 수도자가 되고 싶었고 몬세라트로 성지순례 가서 성모님께 그의 결정을 도와달라고 기도드렸다. 그는 종종 깔라펠에 있는 수도회의 병원들을 방문했고 1935년에 수도회에 들어갔다. 그는 가족에게 천주의 성 요한을 닮고 싶다는 편지를 썼고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헌신하는 일 외에 그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다. 그는 병원에 공산당이 점령하였을 때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손을 그의 가슴위로 모아 그의 살해자들을 용서하며 용감하게 죽음을 맞았다. 그의 나이 26세였다.

복자 엠마뉴엘 로페스 오르바라

그는 푸엔테 라 레이나(나바라)에서 1913년에 태어났다. 그는 마을에 있는 아우구스틴 학교에 갔고 후에 사도학교에 갔지만 공부가 너무 어렵다고 느껴 그 곳을 떠났다. 1935년에 그는 호스피탈러 수도회에 들어갔고 그 다음해에 깔라펠에 있는 수련소에 들어갔다. 그는 감금을 굳건하게 견디어 냈고 다른 수사들과 함께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의 나이 23세였다.

복자 이냐시오 궤헤로 몰리나

그는 몬살바르파(사라고사)에서 1916년에 태어났다. 그는 종종 사라고사에서 가르시아 병원을 방문하였고 여기서 그는 환자들을 돕고 간호하는 자원봉사일을 하였다. 종종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물품들을 갖다주기도 하였다. 그는 1935년에 수도회에 들어갔다. 공산당 점령동안에 그는 종종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내가 한 것은 모두 하느님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20세 생일을 하루 앞두고 죽음을 맞이하였다.

복자 헨리 벨프란 로르카

그는 빌라레알(까스텔론)에서 1899년에 태어났다. 그는 지방 프란치스코회가 운영하는 대학에 다녔는데 여기서 종교 연대의 일원이 되었다. 그와 그의 친구인 도미니크 피파르크가 1935년 호스피텔리 수도회 수련소에 입회하였다. 그는 일행과 남기로 선택하였고 36세의 나이에 총살을 당했다.

복자 도미니크 피파르크 구테아

그는 1909년에 빌라레알(까스텔론)에서 태어났다. 그는 헨리 벨프란과 같이 같은 프란치스코회 대학에 다녔고 1935년 수련소에 들어 오기 전에 약국에서 일하였다. 그는 총살대의 일제사격을 받아 쓰러져서 부상을 입었다. 피에 뒤범벅 되어서 그는 군대원들 중에 한 명에게 그의 목주와 십자가를 주고 그의 어머니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나중에 어머니는 그것들을 못받아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사형 집행을 본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들은 그를 땅바닥에 밀어뜨려 발로 차기 시작했다.” 그는 27세 나이의 수련자였다.

복자 안토니 산치스 실베스트레

그는 빌라마르찬페(발렌시아)에서 1920년에 태어났다. 그는 1928년에 도미니칸회에 들어가려고 하였지만 대신 교구 신학교에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나와서 프란치스코회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곳 청원소가 문을 닫아야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에 갔으며 그곳에서 그를 받아주었다. 그가 총살당했을 때 깔라펠 수련소에 있는지 2달이 되었던 때였다. 그의 나이 25세였다.

복자 엠마누엘 히메네스 살라도

1907년 헤레스 데 라 프론테라(카디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헤레스에 있는 산타 로살리아 병원에 방문하고서 수도회를 알았고,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1935년에 수도회에 재입회하였다. 그는 바르셀로나로 보내어졌다가 깔라펠로 갔다. 그의 나이 28세였다. 2002년에 그의 유해가 로브레가트(바르셀로나)에 있는 수도회의 산 보이 병원에서 헤레스에 있는 성 요한 그란데 병원으로 옮겨졌다.

스페인에서 순교한 콜롬비아 형제들

바르셀로나에서 8월 9일에 순교한 7명의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 형제들이 있었다. 그들은 시복을 받은 첫 콜롬비아인들이다. 호스피텔리 수도회는 1596년 콜롬비아 까르떼헤나에서 설립이 되었지만 다른 수도회들과 마찬가지로 19세기 중반 적대적 정부로부터 억압을 받았다. 스페인 형제들이 1920년 콜롬비아에서 수도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 많은 젊은 콜롬비아인들이 그들과 함께 왔었다. 이들 중 몇몇이 스페인에서 그들의 수도자와 전문가 양성을 마치기 위해서 초대를 받았다. 그러한 까닭에 1936년에 젊은 콜롬비아인 7

명이 시엠포수엘로스에서 머물고 있었다. 적대기운이 일어나자 장상들은 그들을 콜롬비아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마드리드에 있는 콜롬비아 대사관은 그들의 출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문서를 발행해주었고 그들 국적의 도장이 찍혀있는 팔찌를 주었다. 그들은 대사관 직원과 함께 기차를 타고 마드리드에서 콜롬비아로 떠나는 배를 타기 위해서 바르셀로나로 출발하였다.

콜롬비아 영사관에서 나온 또 다른 직원은 도착시 역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간쯤 되는 역에서 그들은 공화국 군대에 체포되었고 바르셀로나에 있는 칼레 발메스 감옥에 갇혔다가 끌려갔다. 그들을 마중나왔던 영사는 그들을 찾지 못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그가 사실을 알아냈을 때 감옥면회가 허락되지 않았다. 그 다음날 수사들을 면회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지만 그들은 시립 의료원 시체 보관소에서 모두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병원의 집꾼이 후에 그들의 순교가 얼마나 용감히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기술하였다. 그들은 기도하였고 다음 총살 순서를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였다. 그들의 시신은 트럭에 실려서 몬트후익 묘지에 있는 공동 무덤에 묻혔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다. 그들은 1992년 7월 25일에 시복이 되었으며 그들의 전례 축일은 7월 30일로 지내고 있다.

복자 예수스 로페스 아길라의 루벤

그는 1908년 콘셉시온(안띠오피아)에서 1908년에 태어나서 호스피탈러 수도회에 1930년에 입회하였다. 콜롬비아와 페루 사이의 1933년 전쟁 동안 그는 전쟁 중에 부상당한 사람들을 돌보았던 빠스토에 있는 수도회 병원에서 일하였다. 그는 일을 하면서 또한 복음의 사도이기도 하였다고 전해졌다. 스페인에서 그는 빠스토에 있는 그의 공동체 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순교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그리고 그의 나이 28세에 그의 기도는 이루어졌다.

복자 아더 아얄라 니뇨

그는 빠이빠(보야까)에서 태어나서 수도회에 1909년에 입회하였다. 그는 1930년에 스페인으로 가서 말라가와 시엠포수엘로스에 있는 수도회 병원에서 봉사하였다. 그리고 사제 공부를 하도록 선택되었다. 그는 스페인 내란이라는 비극으로 인해서 이 공부를 겨우 2년밖에 하지 못하였다. 그가 죽음을 맞이한 것은 27세의 나이였다.

복자 세례자 요한 발라스귀스 벨라에스

그는 하르딘(안띠구아)에서 1909년에 태어났다. 고등학교를 마친 후에 그는 교사가 되었으며 수도회에 1932년에 입회하였다. 그는 1932년에 스페인으로 보내어져서 코르도바, 그라나다와 시엠포수엘로스에 있었다. 시엠포수엘로스에 있었을 때 내란이 일어났다. 그의 나이 27세에 죽게 되었다.

복자 유진 라미레스 살라사르

그는 1913년에 라 켄하(안티오quia)에서 태어났다. 그는 1932년에 수도회에 입회하였으며 1935년에 서원을 한 후에 스페인으로 보내어졌다. 그가 스페인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는 말하였다. “스페인에서 많은 위대한 성인들이 배출되었으므로 스페인과 같은 나라에서 성덕을 쌓기 쉬울 것이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나이 22세였다.

복자 스테판 마야 구띠에레스

그는 빠꼬라(안띠오quia)에서 1907년에 태어났으며 수도회에 1932년에 입회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그의 동료 중 한 사람이 증언하였다: “그는 겸손하고 경건하며 정확하고 환자들에게 자애가 넘치는

사람이었고 항상 그의 모든 수도적 의무들에 대해서 시간 엄수하여 지켰다. 그는 또한 그의 일에 있어서 많고 훌륭한 과학적 준비도 하였는데 이를 하면서도 놀라운 순명의 정신을 보이기로 유명하였다.” 그가 스페인에서 고작 1년 남짓 머무르는 동안 그의 나이 29세 때에 살해되었다.

복자 멜치아데 라미레스 솔로아가

그는 1909년 손손(안띠오펜아)에서 태어나서 수도회에 1933년에 입회하였다. 그는 양성과정을 마치기 위해서 1935년에 스페인으로 가서 시엠포수엘로스 공동체에 같이 있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그의 나이 27세였다.

복자 가스파르 빠에스 베르도모

그는 1913년에 라 유니온(후일라)에서 태어났다. 그는 20세에 수도자가 되기로 하였고 서원을 하고 나서 스페인으로 보내졌다. 1년 후에 다른 6명의 콜롬비아인 동료들과 함께 살해되었다. 그의 나이 23세였다.

마드리드의 시엠포수엘로스 공동체

31명의 형제들이 시엠포수엘로스의 산 호세 정신 병원(지금은 천주의 성 요한 병원으로 불리움)에서 순교하였다. 그들 중 21명은 빠라 쿠에로스텔 하라마(마드리드)에서 총살을 당했고, 7명의 콜롬비아인 형제들은 콜롬비아 고국으로 돌아가려던 중에 바르셀로나에서 총살 당했다. 나머지 세 명은 여러 장소에서 각기 총살을 당했다. 1936의 첫 몇 달 동안에 반대 당원들이 군대를 앞세우고 시엠포수엘로스의

병원을 위협하였다. 7월에 공포정치가 시작되었다. 군대가 병원의 주위를 포위하여 “수사들 중에 한 명도 탈출 할 수 없었다.” 중앙 공화국 정부는 병원을 국영화하고 지방정부가 새로운 경영진을 보냈다. 이들은 모든 종교들을 억압하였고 성화, 성상 같은 종교적 물건들을 없앴다. 형제들은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있었으나 모두들 남아서 환자들을 돌보겠다고 결정하였다. 공동체는 기도하기 위해서 수련소의 성당에서 아침 일찍 함께 모였다. 어느날 수도원장인, 윌리암 룩 형제는 식당에 모여있는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형제님들, 박해의 고통을 받을 시간이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은총에 가치 있게 되도록 우리를 청하고 있고 이제 모두 서로를 껴안으며 서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8월 7일에 그들은 모두 감옥으로 끌려가 한 방에 갇혔다. 군대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내일이면 당신들은 죽을 것이다. 당신들의 기도와 종교적 행위들이 끝이 났으며 당신 모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수도원장은 그들의 목숨을 보호해달라고 청하였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무장한 군인들을 태운 트럭이 두 대 도착했고 53명의 형제들을 태우고 도망치지 못할 곳으로 그들을 데려갔다. 그곳으로부터 그들은 9일 밤에 산 안뜰 감옥으로 이송되었으며 여기에서 그들은 4개월을 머물렀다. 이곳에서 큰 박탈과 경멸에 찬 불경함을 받았었지만 형제들은 윌리암 룩과 후안 헤수스 아드라다스 형제로부터 도덕적이고 영적인 위로를 계속 받았다. 11월 28일에 15명의 형제들이 두 조로 나뉘어서 각 조가 끝나가 처형을 당했고 30일에 여섯 명이 총살대 앞에 서야했다. 그들이 남긴 마지막 말들은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그들은 모두 한 무덤에 한꺼번에 묻혀서 그들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다. 1992년 7월 25일에 시복을 받았으며 그들의 전례 축일은 7월 30일에 지내고 있다.

복자 윌리암 룩 가바

그는 빌라레알(가스펠론)에서 1880년에 태어났고 프란치스코회 학

교에 다녔다. 호스피탈러 수도회에 1898년에 들어갔으며 스페인, 칠레, 이탈리아(여기에서는 로마 관구의 수련장을 역임하였다)의 여러 공동체에서 봉사하였다. 그는 1928년에서 1934년까지 스페인 관구의 관구장이었고 현재 오늘날까지 있는 3개의 스페인 관구를 분리하도록 준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가 임기에 있는 동안에 그는 수도회 병원들에 큰 개혁들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는 병원들을 현대화시키고 확장하였다. 그는 젊은 형제들의 도덕적이고, 신앙적, 전문적 수련에 매우 큰 중요성을 두었다. 그는 '자선과 과학'이라는 잡지를 발간하였고 1929년에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수도회의 전시회인 선교 전시회를 조직하였다. 그는 종종 “자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도가 비참한 인생을 더 좋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었다. 윌리엄은 그가 체포될 때까지 1934년부터 시엠포수엘로스의 수도원장이었다. 형제들에게 뜰로 나갈 수 있도록 허용이 되던 때 그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애를 썼다. 교도관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여기 죄수가 온다, 수도원에서도 타락자들이 충분히 많지 않느냐? 그런데 왜 타락을 또 가르치느냐! 곧 우리가 너를 네 번에 걸쳐서 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이것이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이라 그 어떠한 것과 바꾸고 싶지 않고 매우 행복하다” 고 말하여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그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 더욱이, 피에뜨렐시나의 성 베드로는 그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당신은 순교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그를 부르러 왔다: “이 바보 같은 탁발승아, 이리로 와라!” 그들은 그를 뜰로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불경스러운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는 대답했다 그러자 군인이 말하였다: “너를 쏘겠다.” 이에 그는 대답하였다. “당신이 원하는만큼 수백 번이라도 나를 쏘수는 있겠으나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결코 하지 않겠다. 나는 하느님께 죄를 범하느니 수천 번이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그를 쇠사슬로 묶었고 그는 다른 형제들에게 돌아서서 말하였다.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그의 나이 56세였다.

복자 요한 헤수스 아드락다스 곤살로

그는 1878년에 쾨페수엘라(소리아)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사제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였고 1903년에 서품을 받았다. 그는 사라고사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그러는 동안에 호스피탈러 수도회의 정신병원에서 원목신부로 일하였다. 여기에 있는 동안에 그는 호스피탈러의 소명을 발견하였고 1904년에 수도회에 입회하였다. 그는 발렌시아와 산 보이에서 원목신부로서 일하였다. 1907년에 사도학교를 설립하였다. 두번 수련장을 역임하였고 6년간 관구장을 하였다. 그 후에 그라나다의 천주의 성 요한 대성당에서 신부로 있었다. 공동체가 체포되었을 때 그는 수련장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군대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내 형제들이 있는 곳에 내가 같이 있어야만 하겠소.” 감옥에 갇혀 있는 4개월동안 그는 다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지지하고 영적으로 위로를 해주었다. 그는 두손이 묶인 채로 평온한 얼굴로 총살대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나이 58세였다.

복자 클레멘트 디아스 사하군

그는 푸엔테스 데 나바(빨렌시아)에서 태어났다. 1886년에 수도회에 들어가서 스페인과 멕시코에 있는 많은 병원에서 일하였다. 무엇보다도 사라고사에 있는 수도회 정신병원에서 20년동안 급성기 환자와 동요가 심한 환자들을 돌보았다는 것으로 기억된다. 그는 이 일을 훌륭히 잘해내어서 지역 통치 평의회는 그곳에서 공헌을 한 사람들 가운데에 그의 사진을 끼워넣었다. 판초 빌라가 이끄는 멕시코 혁명동안에, 혁명당원들이 초울라에 있는 수도회 병원으로 들어와서 수사들을 위협했지만 클레멘트 형제는 두려움없이 그들을 대했고 그

들은 수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물러났다. 8월 7일에 군대가 시엠포수엘로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클레멘트를 체포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날 그는 감옥에 나타나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었다. 그는 열렬히 기도하였고 75세의 나이에 총살을 당하였다.

복자 락사루스 무기다 고이부루

1867년에 이다사발(귀뿌스꼬아)에서 태어났다. 19세의 나이에 그는 수도회에 들어가서 스페인에 있는 수도회의 많은 기관에서 주로 요리사로서 봉사하였다. 그는 감옥에서 교도관들의 불경스러운 행동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다. 그는 교도관들을 타일렀고 그 대가로 잔인한 대우를 받았다. 순교할 첫번째 조로 뽑혔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과 헤어짐에 울었지만 평정을 되찾고 69세의 나이에 순교하였다.

복자 마르띠니아누 말테네스 산체스

그는 말라가에서 1878년에 태어났으며 후에 산 바르톨로메 학교에 다녔다. 그는 1894년에 수도회에 입회하였으며 시엠포수엘로스, 그라나다, 산타 아구에다, 라 린니아 데 라 콘셉시온, 세빌라, 발렌시아, 팰렌시아, 말라가, 까라반첼 알토, 헤레스 데라 프론테라에서 일했다. 그는 대부분의 수도생활동안에 문지기로서 일하였고 도움을 찾아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의 모토는 “기도하며 일하라”였다. 그는 나이 58세에 순교하였다.

복자 피터 마리아 알갈데 네그레도

그는 1878년 레데스마(소리아)에서 태어났다. 그는 제빵사였고 24세에 결혼하였으나 일년 후에 아내가 죽었다. 그는 소리아에 있는 사랑의 수녀회가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하곤 하였는데 여기서 환자들을 위하여 땀흘리며 일하였다. 1906년에 그는 호스피탈러 수도회에 들어갔다. 두 명의 천주의 성 요한 수사들이 그들 병원을 위해 모금

을 하러 다니는 신심깊은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시엠포수엘로스, 까라반젤, 마드리드, 그라나다, 산 보이, 지브랄타에 있는 수도회 병원에서 일하였고 여기서 그는 다양한 분야의 일을 했다. 요리사, 린넨실 보조, 서기, 구호품 관리, 부수도원장. 후반기에 위장 장애로 고생하였는데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더 심해졌다. 그가 사형장으로 끌려나갈 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곳으로 갑시다.” 그의 나이 58세였다.

복자 훌리안 폴락사울라 아르폴라

그는 1915년 산 세바스찬(귀뿌스꼬아)에서 대가족으로 태어났다. 그의 형제 자매들 중 5명이 수도회로 들어갔다. 그는 크리스찬 형제회(데 라 살레) 학교에 다녔으며 청년 가톨릭 활동에 열심이었다. 1934년에 수도회에 들어와서 시엠포수엘로스에서 봉사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만성 정신질환 손님들과 함께 하였다. 그의 바람은 “예수 성심의 왕국을 앞당기기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흘릴 수 있는 크나큰 행복을 주시는 것” 이었다. 헤수스 게스타, 윌리암 룩과 같은 수사들과 함께 그는 총살위협을 받으며 불경스러운 행동들로 협박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깨끗하게 이겨내었다. 그는 습관이 된 미소를 띄우며 용감히 총살대 앞에 섰다. 그의 나이 21세였다.

복자 일타티안 델가도 빌체스

그는 까냐르(그라나다)에서 1918년에 태어났고 수도회에 들어올 때의 나이가 17세였다. 그는 감옥에 갇히기 3개월 전에 서원을 하였다. 그 날 그는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지만 그가 형제들의 숙소에 되돌아 왔을 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알고 있었다. 그는 다음날 자진출두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경비들이 그가 그토록 나이

어린 것을 보고 그를 돌려보냈다. 하지만 힐라리안은 공동체의 나머지들과 같이 함께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래서 군대는 그의 옷을 벗겨 몸수색을 하였다. 힐라리안이 다시 옷을 입었을 때 그는 그의 임박한 죽음을 알고 말하였다: “지금 수의를 입고 있습니다.” 그의 처형 순간에 그는 외쳤다: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의 나이 18세였다.

복자 알칸따라 베르날떼 깔사도의 베드로

1910년에 모랄 데 깔라트라바(시우다드 레알)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들은 신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어떤 활동에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그를 말렸다. 그러나 어린 시절 베드로는 노인들을 위한 집에 친구와 함께 방문 다녔다. 그는 한 맹인 노부인을 위해서 모금을 하러 다니고 그녀의 초라한 집을 청소해주었고 그녀와 매주 일요일 미사에 함께 다녔다.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쳤지만 여전히 그의 부모님 반대를 무릅써야 했다. 하지만 마침내 그는 프란치스코회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2년 후에 그의 어머니가 강제로 그를 떠나게 했다. 25세 나이에 그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을 떠나 호스피탈러 수도회에 입회하였다. 이제 그는 자선과 사랑에 갈망하던 것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가 총살대 앞에서 섰을 때 그는 수련자였고 나이 26세였다. 그의 마지막 말은 “만민의 왕 그리스도님 만세!” 였다.

복자 요한 알갈데 알갈데

요한은 수소네스 (부르고스)에서 1911년에 태어났다. 그는 수도회에 24세의 나이에 입회하였다. 감옥에서 그는 “성모 마리아의 영광”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다. 그로 인해 그는 독방에 감금되어야 했다. 그들이 와서 총살 집행시간이 왔다고 발표하자, “그는 어느 순간에라도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일신을 하느님께 바쳤

다” 고 했다. 총살대로 나가도록 그의 이름이 호명되는 것을 듣고서, 요한 예수스 아드라다스와함께 고백성사를 했다. 그리고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갔다: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그가 처형에 접했을 때 그는 소리쳤다: “만민의 왕 그리스도님 만세!” 그는 수련자였고 25세였다.

복자 이사도르 마르띠네즈 이스끄에르도

그는 마드리드의 성 요아킴과 세레자 요한의 교구 출신이다. 1918년에 태어나서 수도회에 1935년에 입회하였다. 체포되어 감옥에 갇힐 당시에 그는 수련자였으며 서원을 불과 두 달여 남짓 남겨두고 있었다. 총살대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였고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인사를 서로 나누었다: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그의 나이 18세였다.

복자 안젤로 사스프레 포르보랄레스

그는 빌라랄보 델 비노(사모라)에서 1916년에 태어나서 아주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서 사모라에 있는 수도회의 고아원에 들어갔고 여기에서 16세까지 머물렀다. 그리고나서 목수가 되기 위해 떠났다.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그는 1936년에 수도회에 들어갔다. 총살대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가 20세였다.

복자 에드워드 바우띠스따 히메네스

그는 1885년 기네따(알바세페)에서 태어났다. 그는 프란치스코회 수사가 되었지만 1935년에 호스피탈러 수도회로 옮기기를 요청하였다. 왜 옮기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병든 이들과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천주의 성 요한의 호스피탈러 수도회에서 간절히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는 감옥살이와 이에 따른 고통들을 한마디 말도 없이 견디

어내고 기도하며 고요하게 지냈다. 폭도들은 그를 빠라꾸엘로스 텔 하라마로 데리고가서 처형하였다. 그의 나이 51세였다.

복자 요셉 모라 벨라스코

그는 1886년에 꼬르도바에서 태어났다. 그는 톨레도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여러 교구에서 보좌신부로서 일하고 따발레라에서 빈자들의 작은 수녀회에서 주임신부가 되었다. 그는 같은 도시에 있는 호스피탈리 수도회의 사도학교를 방문하곤 했다. 결국은 수도회에 입회 요청을 했고 1936년 7월 1일에 시엠포수엘로스에서 청원자로 입회하였다. 그가 체포되었을 때 그는 겨우 청원자가 된지 한 달이 되었을 때였다. 감옥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제로서의 소임들을 언제나 다하려고 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과 모범을 존경하였다. 그가 순교하였을 때 나이는 50세였다.

복자 요셉 루이스 꾸에스타

그는 딜라(그라나다)에서 1907년에 태어났고 14세의 나이에 그의 부모와 함께 아르헨티나에 있는 투쿠만으로 갔다. 스페인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세빌라의 두르칼과 딜라에서 살았다. 그는 1936년 수도회에 입회하였고 면접시 자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우리 조국에 떨어진 불행한 상황이 결코 내 희망에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체포되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청원기 겨우 2달째 되던 때였다. 그는 자주 이렇게 기도하였다: “나는 오로지 그 분만을 신뢰하고 희망을 걸 뿐입니다.” 그가 총살을 당했을 때 29세의 나이였다.

복자 디에고 데 카디스 가르시아 몰리나

그는 깔라트라비아(시우다드 레알)에서 1892년에 태어났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그는 관구 비서였고 안달루시아 관구의 평의

원이었다. 그가 수도회에 들어온 것은 18세의 나이였고 바르셀로나, 산 라파엘 마드리드와 헤레스 데 라 프론테라에 있는 수도회의 여러 공동체에서 봉사하였다. 1920년부터 1928년까지 그는 콜롬비아로 가서 산타페의 보고타 근교에 있는 메르세데 정신 병원에서 원장직을 하였다. 4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항상 밝은 사람이었고 신앙에 자신의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을 섬기도록.” 다른 수사들은 그와 함께 있기를 좋아했다. 왜냐하면 그가 자주 말하였던 위로와 신의 섭리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었다. 그가 장상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강한 정신과 조용함으로, 그는 감옥에서 수련자들로부터 “죽음의 찰나 안에서(in articulo mortis)” 수도서원을 받았다. “천국에서 만날 때 까지 안녕” 이라고 외친 후에, 그는 총살당했다. 그의 나이 43세였다.

복자 로마누스 포우세다 페르난데스

그는 마드리드에서 1904년에 태어났다. 그는 24세의 나이에 수도회에 들어왔고 수련기가 끝난 후에 여러 의무들을 완수하기 위해 시엠펜포수엘로스에서 머물러 있었다. 마지막으로 했던 소임이 부원장이었다. 매일 밤 성체 앞에서 그는 한시간 정도 성체조배를 하였다. 그는 말하곤 하였다. “성체 앞에서 보낸 5분간의 침묵이 사람들 사이에 위로를 찾기위해서 보낸 한 시간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들 중 하나이다: “사랑의 형제 이상으로, 나는 사랑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가 시엠펜포수엘로스를 떠날 때 새로운 운영진은 로마누스에게 그가 남아서 새로운 운영자들을 도울 것인지를 물었다. 이를 거절하자, 그들은 그에게 총을 겨누었고 그는 대답하였다: “죽은 뒤라면 강제로라도 남아있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있겠다.” 그들이 그를 순교지로 데려갈 때 누군가가 이야기했다: “그가 어찌나 행복해 보였던지 위로가 되었다.” 그들이 그를 쏘았을 때 그의 나이 32세였다.

복자 미카엘 루에다스 메기아스

그는 1902년에 모프릴(그라나다)에서 태어났다. 그는 산 도밍고 대학에 진학하였고 수도회에 1922년에 입회하였다. 그는 시엠포수엘로스, 까라반첼 알토, 빨렌시아, 산보이, 말라가와 마드리드에서 봉사하였다. 그의 처형을 목격한 사람이 말하였다: “그가 앞으로 걸어나오는 모습을 보고 판단해 보면 마치 그가 공동체를 위하여 몇가지 일을 하러 나오는 사람 같았다.” 그의 나이 34세였다.

복자 아더 도노소 류릴로

그는 1917년에 푸에브라 데 알코세르(바다호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12세부터 17세 때까지 지방 살레시안 학교에 다녔다. 스페인에서 발발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는 1934년에 수도회에 들어갔다. 그는 그의 동료들과 같은 운명을 겪었다.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고 총살당했다. 그의 나이 19세였다.

복자 예수스 게스타 데 피녜르

헤수스는 마드리드에서 1915년에 태어났다. 그는 1934년 수도회에 입회하기 전까지 가톨릭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그의 수련소 동료들은 “그는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성소를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처럼 보살폈다” 고 진술하였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를 도와주겠다는 칠레 대사로부터의 방문을 받았지만 그는 대답하였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감옥 안의 우리 형제들과 갈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군대의 죄에 대한 보속과 그들의 회심을 위하여 경건한 예배를 드렸다. 그의 동료 수사들인 윌리암 룽, 홀리안, 그리고 홀리안 빼아사올라와 같이, 그는 군대로부터 불경한 행동을 하도록 고문을 당하여도 심지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 왕이시여 만

세!” 라는 말로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의 나이 21세였다.

복자 안토니 마르띠네스 길-레오니스

그는 몬펠라노(세빌랴)에서 1916년에 태어났다. 복막염으로 죽을 뻔 하였으나 치유받은 후에 그는 호스피탈러 수도회에 들어오기를 결정하였다. 정치적 상황이 위험해지자 그의 어머니가 찾아와 그에게 수도회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도록 간청하였다. 그는 어머니의 간청을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완고히 거절하였다: “나는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믿습니까?” 어느 날 수사들을 깨워서 불경한 말들을 복창하도록 하였을 때 안토니는 그의 손가락을 흔들며 확고히 말했다: “당신이 나를 조각조각 낸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불경스러움을 저지르지 않겠다.” 수사들을 포옹하고나서 그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며 말하였다. “천국에서 우리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시오.” 그의 나이 20세였다.

복자 플라비우스 아르구에소 곤잘레스

그는 1877년 무수에코스 데 발데기나페(빨렌시아)에서 1877년에 태어났다. 그는 수도회에 1896년에 입회하여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여러 병원에서 봉사하였다. 그는 와병 중이었기 때문에 수사들이 체포될 때 방에 남겨져 있었다. 하지만 며칠 후 그의 건강이 좋아졌을 때, 그는 심문을 받기위해 구금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발데모로(마드리드) 가까이 있는 곳으로 옮겨졌다. 여기서 전체 그룹이 총살을 당했다. 한 의사가 말했다: “나는 그가 군대에 의해 호송되어 광장을 지나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왕이신 그리스도님 영원하소서!” 라고 외쳤다.” 그의 나이 58세였다.

복자 프란시스 아리아스 마르틴

그는 그라나다에서 1884년에 태어났고 19세의 나이에 교구 신학교

에 들어갔다. 그는 1909년에 사제 서품을 받았고 여러 수녀원에서 사제로서 일하였다. 그가 산 니콜라스 성당에 보좌신부로 있을 때, 공화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교회에 불을 질렀다. 프란시스는 산채로 불에 타 죽을 뻔 했지만 간신히 탈출하였다. 그는 산 라파엘 병원에 있는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 공동체에서 피신해 있다가 1935년에 수도회에 입회하였다. 공화국 군대가 공동체 형제들을 감옥에 가두었을 때 그는 시엠포수엘로스에서 수련자였다. 하지만 그는 도망쳐서 병원 뜰에 있는 돌집에 숨어 있었다. 며칠 후 그는 발각되어 감옥에 갇혔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사무원이라 그대로 가두어 두어야 한다고 말하였지만 군대에 있는 다른 사람은 말했다: “아니다, 그는 사제이다. 그리고 수녀들에게 고백성사를 줬다.” 8월 18일 밤에 그는 또레혼으로 이송되어 총살을 당했다. 그의 나이 52세였다.

복자 토비아 보락스 로메우

그는 1864년에 산 호르게(까스텔론)에서 태어났다. 그는 결혼하였고 그와 그의 아내 모두 콜레라 전염병에 걸렸다. 그의 아내는 병으로 인해 죽었지만 토비아는 살아서 1887년에 수도회에 입회하였다. 그는 과거에 농부로 일했기에 천주의 성 요한 수사로서 사라고사와 까라반첼 알포에 있는 수도회의 병원에 부속되어 있는 농장에서 봉사하였다. 후에 그는 그라나다로 보내어져서 그 곳 병원을 위하여 모금 일을 하였다. 그는 마드리드에서 체포되었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순교자들은 얼마나 복된가! 내가 그들과 곧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안에서 영원히 기뻐할 것이다.” 11월 2일에 군대는 그가 너무도 늙고 병약했기에 그를 놓아주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동료들이 있는 발렌시아로 갔으나 그들이 사형당했다는 것을 들었다. 2월에 토비아는 공화국 위원회로 소환되었고, 그들은 토비아를 속이기 위해서, 병자들을 돌보기 위해 발렌시아로 가라고 쓰여졌다는 소환서를 읽어 주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행복해 했지만, 다음날 그들은 토비아를 비나로스 마을 밖으로 7 킬로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 살

해하였다. 2월 11일이었으며 토비아의 나이 75세였다.

까라반첼 알또 공동체

간질병자를 위한 산 호세 병원의 까라반첼 알또 공동체에서는 14명의 형제들이 있었고 그중에 12명이 처형되었다. 내란이 발발했을 때 1936년 상반기동안에 병원은 그다지 크게 박해받지는 않았다. 그런데 7월 29일에 군대는 병원을 포위하고 공동체를 한 방에 가두고 심문을 하였다. 심문이 끝난 후에 군대는 떠났고, 어떠한 종교적 행위나 종교적 성격을 띤 목적들을 금지시켰다. 모든 종교적 대상들을 없애버리자 형제들은 비밀리에 지하에 있는 린넨실에 모였다. 8월 29일에 군대는 까라반첼의 시장 및 그의 비서와 함께 도착하였다. 시장은 사무실에 있는 모든 문서들을 압류하고 금고에 있는 돈도 몰수하였다. 그는 또한 새로운 운영자들을 배치하였고 형제들이 수도원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았다. 9월 1일에 군대가 도착해서 거칠게 형제들을 체포하였고 강제로 트럭에 태워 데려갔다. 어느 정도 길을 간 후에 그들은 보아딜라 델 몬떼 근처의 까브레라 늪지에 도착했고 여기서 총살을 당했다. 총격대에게 발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형제들은 모두 소리쳤다. “왕이신 그리스도님 영원하소서!” 1942년에 형제들 유해가 습지에서 발견되었고 신원 확인 후 병원 성당 지하납골당에 경건하게 모셔져서 그들의 숭고한 죽음을 기리고 있다.

복자 프로세소 루이스 까사텍스

그는 베니엘(무르시아)에서 1887년에 태어났다. 젊었을 때 그는 산속에 은수자로 살기 위해서 떠났다가 1915년에 호스피탈러 수도회에 입회하였다. 그는 시엠포수엘로스, 마드리드, 지브랄타,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공동체에서 봉사했고, 그리고 까라반첼 알또에서는 원장

으로서 봉사하였다. 1936년 8월에 군대 장교와 함께 온 그의 형이 찾아와 그를 집으로 데려 가려고 했다. 그에게 안전통행증을 주었지만 그는 받기를 거절하였다. 프로세소 형제는 이 통행증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수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안전통행증은 철회되었고, 그는 48세 나이에 순교하였다.

복자 끄리스띠누스 로카 우게트

그는 1899년에 몰린스 델 레이(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다. 그는 시엠포수엘로스에 있는 학교에 다녔다. 서원을 한 후에 사제직을 위한 공부를 하였고 1926년에 서품을 받았으며 마드리드에 있는 수도회의 산 라파엘 병원에서 원목 사제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깔라펠의 수련장으로 임명되었고 마지막으로 까라반첼 알또에서 사도학교의 교장이 되었다. 그의 교육 방법은 “매우 적절하고 효율적이었으며 그 결과는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다.” 그의 원칙은 “친절과 확고함; 존중과 사랑이었다. 장상은 동시에 어머니와 아버지 같아야만 한다. 심지어 무슨 일을 허락할 때는 아버지와 같이, 꾸지람할 때는 어머니와 같아야 한다.” 그가 순교했을 때 그의 나이 37세였다.

복자 에우티무스 아라멘디아 가르시아

그는 솔라나(나바라)에서 1878년에 태어났으며, 15세의 나이에 수도회에 들어왔다. 그는 훈련받은 간호사였고 스페인에서 시엠포수엘로스, 바르셀로나, 산 보이, 마드리드, 무르시아, 산타 아구에다, 발렌시아, 팜플로나 그리고 까라반첼에 있는 병원에서 봉사하였고; 콜롬비아의 보고타와 파스토에서 봉사하였다. 체포될 당시 그는 까라반첼에서 부원장이었다. 1936년 스페인 내란이 일어났을 때 그에게 두 명의 조카가 찾아와 그를 안전한 피난처로 데려가려고 하였지만, 그는 자신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가 순교하였을 때 57세였다.

복자 가누테 프랑코 고메스

그의 고향은 알후세르(무르시아)였고 1871년에 가르멜 수도회에 입회하였지만 건강이 좋지 못해 떠나야만 했다. 1893년에 호스피탈리 수도회에 들어왔다. 그는 몸이 약하고 귀가 먹어서 수도회의 여러 수도원에서 언제나 성당지기로 일하였다. 여기서 그는 성당 장식하는데 있어서 아주 큰 재능을 보였다. 그는 재능있는 예술가였고 아름다운 종교화 및 여타 그림들을 많이 그렸다.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의 나이는 64세였다.

복자 도시떼우스 루비오 알론소

그는 마드리갈레호(보르고스)에서 1869년에 태어났다. 25세의 나이에 수도회에 들어와서 시엠포수엘로스, 사라고사, 산타 보이, 산타 아구에다, 바르셀로나, 팜프로나, 지브랄파, 그라나다, 칼라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깔라반첼 알토에서 간호사로 봉사하면서 환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중에 체포되었다. 그가 처형되었을 때 나이는 75세였다.

복자 케사르 니노 베레즈

그는 파레구띠에레스(세고비아)에서 1878년에 태어났다. 그는 왜소하고 다소 불품이 없어 수도 생활에 어려운 점도 있었다. 1900년에 그는 시엠포수엘로스, 팜쁠로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까라반첼 알토에서 봉사하였다. 그는 아주 덕이 높은 사람이어서 누군가 실수를 저지르고 그에 대해 부정할 때, “그래 바로 네가 안했다면, 케사르 수사가 했겠구나” 라고 말하곤 하였다. 관구장은 증언하였다. “그는 결코 역경에 처했을 때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덕은 영웅적 태도로 앞길을 비추었다.” 그가 체포되었을 때, 군대가 그에게 말하였다: “여기서 나가서 너의 인생을 찾아라.” 케사르

수사는 대답하였다: “아니다. 내 형제에게 한 것을 바로 나에게도 해야 할 것이다.” 그의 나이 57세였다.

복자 벤자민 꼬보스 셀라다

그는 1887년에 발렌시아에서 태어났고 수도회의 사도학교에 14세의 나이에 들어왔다. 그는 예비 청원기, 청원기, 수련기의 단계들을 거쳐서 마침내 1905년에 서원을 하였다. 그는 정규간호사였고 시엠포수엘로스, 바르셀로나, 산타 보이, 말라가, 그리고 까라반첼 알토에서 봉사하였다. 카라만첼 알토에서 체포되었고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처형당했다. 그의 나이 49세였다.

복자 가르멜로 길 아라노

그는 뚜델라(나바라)에서 1879년에 태어났고 수도회에 1906년에 입회하였다. 그는 시엠포수엘로스, 팜펠로나, 발렌시아, 산 보이, 그리고 까라반첼 알토에서 간호사로 봉사하였다. 그의 취미는 그림이었으나 그의 작품 중 어느 것도 전해진 것이 없다. 그는 공동체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의 나이 57세였다.

복자 꼬시모 부룬 아라라

그는 1894년에 산타 콜로마 데 파르네스(게로나)에서 1894년에 태어났다. 그는 게로나 교구 주교의 신임받는 관리자가 되었다. 주교가 선종하고나자 그는 수도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바르셀로나에서 그의 동생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이 세상이 나에게 어떠한 것도 제공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천주의 성 요한 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1916년에 그는 천주의 성 요한 병원으로 가서 수도회에 입회하였다. 그는 스페인에 있는 수도회의 여러 병원에서 봉사하였으며 41세 때 순교하였다.

복자 세실리우 로페스 로페스

그는 1901년 폰돈 데 라스 알푸하라스(알메리아)에서 태어났고 15세 때에 시엠포수엘로스에 있는 수도회의 사도학교에 들어갔다. 그는 간호학과 의학을 공부하였고 1920년 서원한 후에 거동 못하는 환자들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그는 사제가 될 공부를 하도록 선택받았으나 결핵이 걸려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콜롬비아로 보내어져서 건강을 회복하였고 그곳에 있는 동안 의료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1935년에 스페인으로 되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였다. 그가 체포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환자들에게 말하였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그들이 우리에게 총을 쏠 것이기에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나이 35세였다.

복자 루피누스 라세라스 아이스꼬베

그는 1900년 아란디고엔(나바라)에서 태어났다. 젊었을 때 그는 가난하고 곤경에 처한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이곤 하였다. 그의 본당 사제는 그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는 젊었지만 이해력은 나이든 사람처럼 성숙되어 있었다.” 나이 27세 때 수도회에 들어왔으며 그의 호스피탈리티는 다음과 같이 눈에 띄었다: “그는 항상 자애로움으로 행동하였고 영웅적인 자기희생을 보였다.” 여러 일에 그는 종사였는데: “그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받았으며 수도생활을 잘 준수하기로 명성이 나있었다.” 36세의 나이에 살해되었다.

복자 파우스티누스 빌라누에바 이구알

그는 사리온(투루엘)에서 1913년에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4살이었을 때 돌아가셨으며 6년 후에 그는 시엠포수엘로스에 있는 수도회의 사도학교에 들어갔다. 그는 중한 병 때문에 집으로 되돌아가야 했고 건강이 회복이 된 후 1931년에 수도회에 재입회하였다.

그는 병역의무를 시엠포수엘로스에 있는 진료소의 군의무대에서 일하는 것으로 복무하였다. 1935년에 그는 까라반첼 알토로 이송되었으며 여기서 그는 23세의 나이에 순교하였다.

로브레가트의 바르셀로나와 산 보이 공동체들

이들 공동체에서 순교한 형제들은 수도회의 두 사도처에서 종사하고 있었다. 앞 사도처에서 4명의 형제가 그리고 다음 사도처에서 한 명의 형제가 순교하였다.

바르셀로나의 아동 병원

스페인에서 수도회 부흥의 진원지(1867)인 이곳은 아라곤 관구의 관구장 거처가 있는 곳이었다. 1936년 7월 20일과 26일 사이에 공동체와 병원은 여러 조사들을 받았으며 그 와중에 공화국 군대는 형제들을 위협하였고 성물들을 파괴하였다. 성당은 더럽혀졌고 미사 제구들은 몰수되었다. 22명의 형제들이 그들의 숙소에서 연금되었다가 마침내 풀려나 여러 집으로 피신하였다.

로브레가트의 산 보이 정신 병원

산 보이에서는 52명의 형제들이 있었다. 군대가 쳐들어 왔을 때 수사들은 수도원에 연금이 되었고 온갖 형태의 무도함과 위협이 가해졌다. 마침내 그들은 경찰 본부의 감옥으로 이송되었으며 여기서 마르세이유로 배로 국외추방되기를 기다렸다.

복자 세례자 요한 에고스 쿠에자발

그는 1882년에 누이(나바라)에서 태어났다. 그는 29세에 호스피탈

러 수도회에 들어왔으며 시엠포수엘로스, 사라고사, 팜쁠로나, 산 보이,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봉사하였다. 형제들이 7월 26일에 추방되었을 때 그는 다시 잡혀서 총살당하였다. 그는 팔짱 낀 채로 무릎 꿇어 앉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군대는 예수의 거룩한 이름과 성체를 불경스럽게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기도를 하면서 조용히 있었고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총을 쏘았다. 요한은 54세였으며 그의 유해는 산 보이 성당에 모셔져 있다.

복자 알라칸따락 빌라누에바 라락이요스의 베드로

그는 오씨나가(나바라)에서 1881년에 태어났다. 그는 수도회에 27세 때에 입회하였으며 스페인에 있는 수도회의 여러 정신병원에서 봉사하였고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에서 봉사하였다. 그가 병원을 떠났을 때 그는 한 개인 집에 몸을 피신하였다. 9월 4일에 군대가 그 지역을 침범하였고 그를 발견하였다. 집 주인은 그를 구하려 하였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수사라는 것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리스도님을 위하여 죽는 일보다도 세상에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총을 한 번 혹은 두 번 쏜다면 나는 천국으로 바로 갈 것이다.” 그들은 모두 잡혀갔지만 며칠 후에 그를 보호해 주었던 가족은 풀려났다. 베드로 수사는 9월 11일 밤에 살해되었다. 그의 나이 55세였다. 그의 유해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복자 아시스클루스 뽀나 뽀아수엘로

그는 가스빠(사라고사)에서 1875년에 태어났다. 그는 1915년에 수도회에 입회하였으며 20년동안 시엠포수엘로스, 산 보이, 팜쁠로나,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위하여 봉사하였다. 병원에서 추방되었을 때 그는 수도원장 가족의 집에 피신하여 있었다. 11월 5일에 군대 순찰대가 집을 뒤져서 그를 찾아내었다. 집 여주인과 아시스클루스 형제는 체포되었고 산 엘리아스에 있는 감옥에 갇혔

다. 후에 여주인은 그 형제가 11월 10일 혹은 11일 사이의 밤에 총살당했다고 했다. 그는 다른 40명의 희생자들과 같이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여러 수도회의 수도자들이었고 모두 도시 근교로 끌려가서 처형당했다. 그의 나이 58세였으며 유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복자 프로타시우스 꾸벨스 밍구엘

그는 1880년 풀리 데 나르고(레리다)에서 태어났다. 형제들이 위협을 받던 슬픈 시기동안 그는 아라곤 관구 평의원이자 관구장 비서였다. 그는 뛰어난 음악인이자 작곡가였다. 형제들이 병원에서 추방당했을 때 그는 음악 강습을 하여 몇 명의 수사들의 숙식 비용을 해결하였다. 누군가가 그에게 바르셀로나를 떠날 수 있는 배표를 주었으나 그는 거절하며 대답하였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고심 끝에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교의 기회를 접하는 것이 종종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12월 14일에 체포되었고 그의 시신은 몬세라로 가는 길 옆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56세의 나이였다.

복자 요한 안토니 부로 마스

그는 바르셀로나에서 1914년에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어린 아이였을 때 돌아가셨으며 그는 바르셀로나의 천주의 성 요한 고아원에 보내졌다. 그는 후에 시엠포수엘로스에서 있는 수도회의 사도학교에 들어갔다. 수련기가 끝나고 1933년에 서원을 하였다. 그는 병역의무를 수도회의 시엠포수엘로스 정신병원과 마드리드 병원에 있는 의무대에서 이행했다. 위험을 깨닫고서, 그는 그의 안전을 걱정하는 친구에게 말하였다: “두려워 하지 말게, 우리가 아주 정당한 이유로 죽게 된다면,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네.” 시엠포수엘로스에서 그는 한 치과 의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그 분은 우리 구원을 위해 최상의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

다.” 마드리드에서 군복무 시절에 그는 동료 병사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11월 5일에 총살 당하였다. 그의 실종이 알려졌을 때 그의 살해자 중 하나가 말하였다: “그는 조국을 위해서 죽었다. 그는 그리스도 왕을 불렀지만 아무도 그를 도우러 오지 않았다.” 요한은 당시 22세였다.

복자 프란시스 하비에르 폰사 까사라르크

그는 모야(바르셀로나)에서 1916년에 태어났다. 그는 1935년에 수도회에 입회하였다. 그는 산 보이의 수도회 정신 병원에 갇혔다. 장상들은 그를 부모가 있는 집으로 보내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가 곧 닥쳐올 위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는 말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을 뺏어가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하느님의 뜻이라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프란시스 하비에르 형제는 9월 27일에 체포되었으며, 산 펠리우 데 폴리나스(바르셀로나)에서 28일 저녁에 처형되었다. 그는 사형집행관에게 이야기하였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주시오.” 그들은 응답하였다: “원하는대로 기도하여라. 네가 기도할 시간이 많이 있다.” 그가 무릎을 꿇었을 때 그들은 즉시 그에게 총을 쏘았다. 그의 유해는 산 보이 병원 성당에 모셔져 존경받고 있다. 그는 20세였다.

까스펠리안 관구

까스펠리안 관구에는 3명의 순교자가 있다. 두 명은 마드리드의 산 라파엘 병원에서였고 세번째 순교자는 시엠포수엘로스에서 군복무 중이었다.

산 라파엘 공동체

공동체는 35명의 형제들로 구성되어있었다; 형제들은 수도복을 입은 채 밖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러 다닐 수 없었다. 자선금을 모으는 형제들은 안전 통행증을 받았고 평복을 입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20일에 군대가 병원에 들어왔을 때 상황은 악화되었다. 형제들은 10월 24일에 병원에서 추방되었으며 그들은 흩어져서 도시에서 피신처를 찾았다.

복자 곤살로 곤살로 곤살로

그는 폰페수엘라(소리아)에서 1909년에 태어났다. 그는 수도회에 21세의 나이에 입회했지만 바로 군복무에 들어갔다. 여기서 그는 군 의무대에 있었다. 1936년에 그는 마드리드 공동체의 일원이었으며 병원에서 구호품을 담당하고 있었다. 8월 4일에 그는 평복을 입고 자선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지만 군대가 그를 막고 통행증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 곤살로는 한번은 수도복 때문에 잡혀서 돌에 맞았다고 설명하였다. 한 아파트에서 모금을 구하려고 할 때, 한 수위가 그를 고발하였고 체포되어 가까운 교차로에 끌려가서 총살당하였다. 그의 나이 27세였다. 그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복자 니세포루스 살바도르 델 리오

그는 1913년에 빌라모르코(빨렌시아)에서 태어났다. 그는 시엠포수엘로스에서 사도학교에 다녔으며 그리고 청원기, 수련기를 거쳐 1931년에 서원을 하였다. 그는 시엠포수엘로스와 산타 아구에다에서 봉사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마드리드에 있는 산 라파엘 공동체로 임명받았다. 1936년에 의무부대에서 군복무를 시작하였다. 막사에서 그는 자신을 수사로써 등록하였고 그 결과 체포되었으며 산 안톤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곳은 시엠포수엘로스 출신의 자신의 동료가 갇힌 곳과는 다른 곳이었다. 11월 30일에 니세포루스와 다른

6명의 천주의 성 요한 형제들과 다른 수도회의 수도자들은 끌려나가서 파라꾸엘로스 텔 하라마에서 총살당했다. 그의 나이 23세였으며 그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복자 하신포 오유엘로스 곤잘레스

그는 마따레뿌디오(산탄데르)에서 1914년에 태어났다. 그는 1934년에 수도회에 들어갔으며 시엠포수엘로스에서 있는 의무부대에서 병역의무를 시작했다. 그는 8월 7일에 군대에 의해서 체포되고 감금되었지만 병원에서 의무대장으로 있었던 의사가 그를 구했다. 그는 군대에게 하신포가 군인이기에 자신의 명령하에 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군대는 여전히 그를 위협했고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사악하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지요? 그들이 우리를 죽인다면, 우리는 순교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9월 18일 밤에 감옥에 갇혔으며 인민 광장 앞으로 끌려갔다. 그는 불경스런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았으나 굳건히 거절하였기에 학대당한 후에 총살형을 언도 받았다. 군대는 시엠포수엘로스 외곽 먼 곳으로 그를 데려갔고, 총으로 쏘는 것 대신에, 나무에 목을 매달았다. 하신포는 22세의 나이였고 그의 유해는 마드리드의 산 라파엘 병원 성당 안뜰에 안장되어 있다.

가경자 프란시스 까마초 (1630-1698)

그는 헤레스 데 라 프론테라에서 태어났다. 그의 정확한 출생일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1630년 5월 21일에 있었던 그의 세례일에서 며칠 전이라 추정된다. 처음에 그는 농사일을 하면서 그의 부모를 도왔지만 까탈로니아에서 프랑스와의 전쟁에 참전할 군대에 입대해 레리다의 포위공격에 참여했고 이는 1647년에 끝났다. 전쟁은 1652년 바르셀로나 정복으로 끝나게 되었다. 그 다음에 프란시스코

는 해군에 입대해서 안달루시아 해안을 지키는 해군함정의 구성원이 되었다. 어떤 이유인지 설명이 되지 않았지만 그는 카디스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다행히도 사형을 모면하였고 그리고 나서 하사 계급을 달고 미국 식민지로 항해를 갔다. 그는 중한 병에 걸려서 그가 까르테헤나(콜롬비아)항에 상륙했을 때 수도회의 병원으로 실려갔고 여기서 수사들의 간호를 받게 된다.(호스피탈러 수도회는 까르테헤나에 1597년에 도착해서 1612년부터 성 세바스찬 병원을 운영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로 프란시스코는 한 번 더 군대생활을 더하면서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페루 등지를 여행하였고 페루에서는 리마 가까이에 있는 큰 농장의 감독관이 되었다.

1663에 프란시스코는 유명한 예수회 신부 프란시스코 텔 까스멜로의 연설을 듣게 되었다. 너무도 감명을 받은 나머지 그는 후에 그 사제에게 찾아가서 영적인 지도를 해달라고 했다. 사제는 그에게 산 디에고 병원에서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수사들과 함께 일하는 자원봉사일을 함으로써 경험을 쌓아보라고 조언하였다. 산 디에고 병원은 수도회가 1606년에 리마에 세운 병원이었다. 프란시스코는 이것이 그의 진정한 소명이라고 느꼈고 1663년 10월 3일에 수도회의 수련자로 받아들여졌다. 1664년 10월 4일에 수도서원을 한 후에, 프란시스코는 간호사로 일을 하였고 같은 공동체에서 구호품 모금자로서 34년간을 일하였다. 그는 1674년에 공동체 원장으로 임명되었지만, 이 직에서 사임하기를 요청하였고 이는 총장 수사에 의하여 인정되었다. 1687년 리마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병원이 파괴되어 형제들은 도시 밖으로 옮겨가야 했다. 프란시스코는 도시와 시골을 돌아다니며 병원과 부속 성당을 다시 세울 후원금을 모금하였다.

프란시스코는 겸손, 절제, 고행, 기도, 그리고 수많은 자선 행위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미래를 예언하는 기이한 면이 있었고 그의 치유 방법으로 유명하였다. 그는 1698년 12월 23일에 선종하였고 병원에서 큰 병동의 끝에 있는 제단 앞에 묻혔다. 교황 레오 12세는 1881년 1월 1일에 프란시스코를 '가경자'로 선포하였다. 그

의 유해는 이장되어 리마에 있는 주교좌성당 묘지에 안장되었다. 프란시스코는 한번은 동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심을 가지시오,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감사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도회의 하느님의 종들

하느님의 종 유스타스 쿠글러 (1867-1946)

유스타스는 네우하우드(바바리아)에서 1월 18일에 태어났다. 그는 7형제 중에 막내였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나이 7살이었을 때 돌아가셨고 그래서 초등 교육을 끝마쳐야만 했다. 15세의 나이에 무니히로 가서 큰 형이 다니는 건설 회사에서 같이 일하였다. 일하는 동안에 그의 동료 중 하나가 그를 미는 바람에 건물에서 4미터 아래로 떨어져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일로 다리 모양이 틀어져서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 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라이센바흐로 갔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나이 19세 때 돌아가셨다.

1890년에 수도회는 버려진 수도원에 절름발이를 위한 집을 세웠다. 그의 매형이 오래된 건물의 보수를 위하여 계약을 맺었고 그는 이일에 유스타스를 고용하였다. 이 일을 하면서 그는 천주교 성 요한 수도회의 수사들을 알게 되었고 2년간의 일 계약이 만료되자, 그는 수도회에 받아주라고 요청하였다. 수도회는 그를 받아들였고 그는 수련기를 마친 후 1895년에 서원을 하였다. 그는 후에 그렘스도르프로 보내어져서 부원장이 되었다. 그 후로 그는 여러 직에 봉사하였고 1925년에 관구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그는 이 직을 죽기 전까지 21년간 수행하였다. 1927년에 그는 바바리안 주 정부와 계약을 맺어 수도회가 무니히에 야간 쉼터를 개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나서 로젠버그에 가톨릭 종합병원을 세웠다. 그 병원의 성당도 1927년에 준공되었다. 그 일년 전에 유스타스 수사는 위궤양 수술을 받았는데 그는 이 병을 고행으로 인내하였다. 히틀러와 그의 나찌당이 정권을 잡고 귀에 거슬리는 연설을 시작하였을 때 유스타스 형제는 말하였다: 이 나무들은 결코 천국까지 자라지 못할 것이요. 로젠스버그로 히틀러가 방문하는 동안 나찌식 경례를 붙이라고 요구당하였으나, 그는 이를 거절하고 근처 교회에 머리를 숙였다.: “우리의 총통께서 저 안에 계십니다.”

1937년에 게슈타포가 로젠스버그 병원으로 쳐들어와서 공동체의 형제들 몇 명을 체포하였다. 그들은 관구장과 다른 형제들을 몇 시간동안 심문하였다. 모든 관구장 서한이 몰수 되었고 그의 서류들이 봉인되었다. 게슈타포는 다시 돌아와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위협하였다. 유스타스 형제는 게슈타포 본부로 끌려가서 조사받고 고문을 당했다. 다른 기회에 게슈타포는 형제들의 공동체로 침입했다. 그 때 형제들은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 때 유스타스 형제가 기절했다. 심문을 받을 때 그의 의연함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고 공동체의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언급하기를 거절하였다. 그의 기도와 깊은 신심이 그로 하여금 넘어야 할 이 시련과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였다.

전쟁이 선포되었을 때 병원은 나찌당에 의해서 몰수 되었고 신인종법에 따라 1,700명의 환자들이 말살 목적으로 세워진 수용소에서 학살당했다. 수도회는 더 이상 새로운 수사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되었다. 많은 형제들이 군대에 징집되었고 전선에서 싸우다 죽었다. 네 개의 수도회 병원이 공습으로 인해 심하게 손상되었다. 유스타스 형제는 공습 사이렌이 울릴 때 밖으로 나왔다. 그는 무릎을 꿇고 병원을 구해달라고 기도드렸다. 폭탄이 뜰로 떨어졌으나 건물은 살아남았다. 그를 괴롭혀 왔던 궤양이 악성 종양으로 바뀌어서 그 결과 그는 1946년 6월 10일에 선종하였다. 그의 크나큰 영성과 영웅적인 의연함은 1963년 교구 과정의 근거가 되었고 그의 시복을

위한 연구가 로마에서 계속되었다. 1904년 10월 19일에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선하신 하느님께 내적으로 속해 있다. 나는 계속 나를 위한 그분의 뜻을 찾고 수행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나는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하느님의 종 호세 올랄로 발데스 (1820-1889)

호세 올랄로 발데스는 1820년 2월 12일에 하바나(쿠바)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들은 누군지 모르는데 그가 태어난 지 한 달 되었을 때 고아원 문앞에 버려져 있었다. 아가와 함께 있는 쪽지에 아직 그가 세례를 받지 못했다하여 세례를 받으면서 호세 올랄로라는 세례명과 함께 성으로 발데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요셉, 또는 올랄로라고 더 잘 알려져 있는데, 고아원에서 자라났으며 성장하면서 호스피탈러 수도회를 알게 되었고 1833년에 수도회에 받아들라고 청하였다. 그는 하바나에 있는 천주의 성 요한 병원(전에는 성 펠릭스와 산티아고 병원이라고 불리움)에 있는 수도회에 입회하였다. 여기서 1834년에 서원하였다. 그는 푸에르토 프린시페(1903년에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은 카마구에이 도시라고 불리움)에 있는 수도회의 병원에 보내졌는데 여기는 콜레라 전염병이 창궐하였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반성직 정부가 들어서서 수도 단체들을 탄압했고 수도회들로 하여금 기관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스페인에서 호스피탈러 수도회 한 군데만 해도 52개소의 병원과 또한 필리핀에서 3개의 병원을 포기해야만 했다. 쿠바에서는 수사들이 수도복을 입지 못하도록 금하여서 그들은 평상복을 입어야 했다, 그렇지만 아직은 자신들의 병원에서 일을 할 수는 있었다. 올랄로 형제는 새벽부터 자정 늦게 혹은 그 이상까지도 병자들을 간호하는데 헌신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들을 돌보았다. 그는 스페인 식민지 군대와 쿠바 독립군 간에 벌어진 전쟁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간호하였다. 이 외에도 쿠바 자유군이 갇혀 있는 감옥에 그들의 부상을 치료하러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죄수들

은 3개의 방에 88개의 침상을 놓고 간헐있었다. 올라로 형제는 그들의복의 세탁까지도 돌보아 주었다. 그는 몸소 도시를 가로지르는 시내에서 빨랫감들을 세탁하였다. 1856년에 그는 수도원장이 되었지만, 그 곁에 한 명의 수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들을 간호하는 지휘 책임이 올라로 몫이었다.

독립 전쟁 (1868-1878)이 발발하였고 푸에르토 프린시페(카마구에이)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쿠바 전투의 중심지가 되었다. 1873에 전쟁 영웅이며 변호사이자 독립군의 군대 지휘자였던 이나시오 아그라몬테 장군이 카마구에이에서 전사하였다. 스페인 군대는 그의 시체 매장 준비를 하는 것도 교회의 종을 울려 죽음을 애도하는 것도 금지하였다. 스페인군대는 올라로 형제에게 명령하여 자신들 군대의 부상자들만 치료하도록 병원을 조직하라고 하였지만, 그는 천주의 성 요한의 정신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이 명령에 따르기도 하고 일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독립군 투사들 중 병자나 부상자를 데려오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올라로를 사랑의 투사로 여겼다. 그는 환자들을 자신의 가장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라고 불렀다. 천주의 성 요한 처럼 그는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로 여겨졌다.

올라로 형제는 1888년 3월에 카마구에이를 휩쓴 천연두와의 전쟁에서 선봉에 섰다. 그는 그 다음해 3월 7일에 임종하였으며, 수천의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였다. 카마구에이 시민들은 도시 묘지에 있는 그의 무덤 위에 눈에 띄는 대리석 기념비를 세웠다. 기념비문에는 과거 스페인 수도회의 마지막 쿠바 태생 천주의 성 요한 수사였던 호세 올라로 발데스 형제에 대한 감사와 자긍심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념비는 올라로 아버지께서 천주의 성 요한 병원에서 53년간 봉사하신 동안 도움을 받은 가난한 이들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과 함께 천국까지 돌아왔다.”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는 1941년에 쿠바로 돌아와서 천주의 성 요한 정신 병원을 하바나에 열었다. 4년 후에는 결핵 아동을 위한

산 라파엘 병원을 마리아나오 마을에 세웠다. 올랄로 형제는 아직도 독립 전쟁 중에 병자와 부상자들을 돌보았던 그의 꾸준한 봉사로 쿠바 공화국의 영웅으로 기억되면서 존경받고 있다. 1989년 3월 7일 카마구에이 시는 그의 죽음 100주년을 시민과 함께 기념했고 종교적인 경축도 하였다.

오늘날 카마구에이 시의 수도회 옛 병원은 의과대학으로 쓰이고 있다.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는 하바나에서 또 다른 병원을 갖고 있고 빈곤하여 집없는 노인들을 위한 집을 운영하고 있다. 1991년에 호세 올랄로 발데스 형제의 시복을 위한 소청이 로마에서 제출되었다.

하느님의 종 윌리엄 가농 (1905-1972)

윌리엄은 미국 뉴 햄프셔 주 도버 마을에서 캐나다 출신 부모 슬하 12명의 자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그의 가족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서 그 곳으로 이주해 왔고 윌리엄은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마을 천주교 학교에 다녔다. 학교를 마치고 나서 그는 농사일도 하고 섬유 공장 노동자로서 일하였다. 1932년에 25세의 나이로 그는 수도회의 캐나다 관구에 들어갔으며 1932년에 서원을 하였다. 같은 해에 그는 청원장 겸 몬트리얼 공동체의 서기로 임명되었다. 그 당시 캐나다는 프랑스 관구의 지부가 되었고 윌리엄은 제 3 평의원으로 임명되었다. 1941년에, 관구 지부가 수도회의 관구로 승격되면서, 윌리엄 형제는 관구장으로 임명되었고 또한 몬트리얼에 있는 자비로운 성모 병원의 원장이 되었다. 이 일을 7년간 역임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퀘벡 근처의 성 아우구스틴 병원에서 원장 수사가 되었다.

윌리엄 형제의 아버지가 1951년에 도버에서 돌아가시자 그는 해외 선교사로 지원하였다. 1952년 그는 베트남에서 수도회의 선교를 맡을 사명을 부름받았다. 1952년에 그와 동료 형제 2명이 하노이에 도착하였고 레드 리버 삼각주에 있는 부이-쥬 마을에서 120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병원을 세웠다. 전쟁 중에 그곳은 전투지가 되었는데 수사들은 부상자들을 간호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다. 폭탄이 떨어져 병원의 지붕을 날려버렸고 다른 폭탄은 불발하였으나,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윌리엄 수사는 성모님께 병원과 수도원을 보호해 달라고 청하는 기도를 드렸고 포격을 맞은 벽에 기대어 성모마리아 상을 놓았다.) 1954년에, 공산주의가 이 나라 북부지역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윌리엄 형제는 5명의 수도회 입회자들을 캐나다로 보내고, 남쪽으로 향하는 800,000명의 피난민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천연두와 콜레라 주사를 놓아주었다. 총장 수사는 더 이상 어떠한 설립도 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지만 윌리엄 수사는 사랑의 방법을 선택하였고 그래서 그는 북쪽에서 쫓겨 내려가는 피난민들을 위한 진료소를 사이공 근처에서 운영하였다. 1956년에 그는 비엔-호아(동-나이)에서 병자와 피난민들을 위한 착한 의견의 성모 병원을 설립하였다. 그는 실제로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만 했다, 건축가, 벽돌나르기, 그리고 17명의 청원자로 증가한 공동체 원장직. 그는 1959년에 몬트리올로 돌아왔지만 1962년에 베트남으로 돌아가, 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이 일을 1968년까지 역임하다가 서기로 임명되었다. 일년 후 그는 베트남 중앙지역인 다낭에서 공동체를 열도록 책임맡았다. 전쟁의 포화가 북부 베트남을 삼켜버렸고 이제 윌리엄 형제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련자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1971년 한 차례의 열병을 앓았고 1972년 2월 28일 심장마비로 운명하였다. 베트남 사람들은 그를 '난(Nhan) 수사님'이라고 불렀다. 수사들은 윌리엄 형제를 성당 앞 뜰의 성가족 동상 가까이에 묻었다.

그의 시복을 위한 청원이 2000년에 시작이 되었다. 1944년 12월 23일에 윌리엄 형제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의 성소는 경이로운 것이다.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간호하는 것이며 예수님이신 그들에게 헌신과 사랑인 우리의 생활을 제공하는 것

이다. 하지만 이를 행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우리 형제들 및 자매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 그들이 누구이건 상관없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이처럼 열심한 신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만레사 공동체 (바르셀로나)

만레사에 있는 천주의 성 요한 요양소에 있는 공동체에는 두 명의 순교자가 있었다. 30개의 병상을 갖춘 이 자그마한 병원은 산 속에 위치해 있었고 깔라펠에 있는 해변 요양소와 함께 바르셀로나 아동 병원의 두 부속 기관 중 하나였다. 1932년에 개원하였고 1935년에는 공동체에 6명의 형제가 있었다. 그해 8월 5일에 공화국 군대가 침범하여 수도회를 해산시켰다. 두 명의 형제는 바르셀로나에 피신해 있다가 체포되어 1935년 8월 27일에 총살당했다. 그들의 시신은 몬트홀크 묘지의 공동 무덤에 던져졌으며 그런 이유로 시신을 회수하여 수습할 수 없었다.

하느님의 종 모리스 이니구에스 데 헤레디아 알소라

그는 달로(알라바)에서 1877년에 태어났다. 그는 1893년에 수도회에 입회하였다. 이전에 그의 동생 가우덴시오와 홀로되신 그의 아버지도 또한 수도회에 입회하였다. 그는 시엠포수엘로스, 산 보이, 발렌시아에서 봉사하였으며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보내어져 마침내 그의 생애 마지막 2년간을 만레사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는 루이스 벨트란 형제와 함께 바르셀로나로 가서 손님 숙소에 머물고 있었다. 어느날 그들은 함께 손에 묵주를 들고 길을 가고 있었다. 그들은 체포되어 총살을 당했다. 모리스의 나이 59세였다.

하느님의 종 루이스 벨트란 솔라 히메네스

1899년에 나페(나바라)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8년 수도회에 입회하였다. 그는 대부분의 수도생활을 까탈로니아에 있는 수도회의 공동체들에서 보냈다. 밤에 그는 감옥에 갇힌 병자들을 돌보았다. 형제들이 추방된 짧은 기간에 그는 모리스 형제와 함께 그들을 도와주었던 은인들을 방문하러 나갔다. 은인들 중 하나가 1936년 8월 27일 총살당한 두 형제들의 시신을 알아보았다. 루이스는 37세의 나이였다.

시엠포수엘로스 공동체

하느님의 종 구아덴시오 이니구에스 데 헤레. 디아 알소라

그는 1882년 달로(알라바)에서 태어났다. 수도회에 17세에 입회하였고 시엠포수엘로스, 까라반첼, 마드리드,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있는 공동체에서 봉사하였다. 그는 공동체 원장직을 발렌시아, 빨렌시아, 그리고 말라가에서 역임하였다. 또한 두 번 서기직을 역임했는데 마드리드에 있는 산 라파엘 병원 그리고 시엠포수엘로스에서였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시엠포수엘로스에서 있는 병원은 1935년 7월 31일에 징발되었다. 하지만 구아덴시오는 원장 수사에 의해 몇몇 두드러진 빛을 갠기 위해서 마드리드에 보내졌다. 공화국 군대는 그를 체포하였고 그가 갖고 있던 돈도 빼앗았다 그리고 그가 돈을 갖고 도망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날 밤 그들은 구아덴시오를 발데모로의 마드리드 지역에 데리고 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총살하였다. 그의 나이 54세였다.

마드리드의 산 라파엘 공동체

하느님의 종 트리니티 안드레스 라나스

그는 1877년 매추(알라바)에서 태어났다. 그는 바르셀로나에 일하러 갔다가 그 곳 병원에 있던 수도회를 알게 되었다. 1912년에 수도회에 입회하였고 스페인의 여러 공동체에서 봉사하였다. 그는 마드리드의 산 라파엘 공동체에서 원장 수사로 지냈고 후에 빨렌시아에서 서기직을 역임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현세적 재화는 오래가지 못하며, 우리를 기만한다. 하지만 영적 재화는 영원히 존속하며, 영원하다. 한번 생각해 보라. 영원 무궁하다. 나는 살아있어 기쁘지만 천국에 몸시 가고 싶다.” 산 라파엘 병원에서 쫓겨났을 때, 그는 다른 형제들과 협조자들을 도와주었던 문서에 의해 도움을 받았지만 1937년 2월 5일에 체포되어 총살당했다. 그의 나이 59세였다.

깔라펠 공동체

하느님의 종 마테오 모린 라모스

그는 1913년에 살바띠에라 데 포르메스(살라만카)에서 태어났다. 그는 시엠포수엘로스에 있는 사도학교에 들어갔으며 이 때 그의 나이가 13세였다. 그는 1931년에 서원을 하였다. 그는 점령기간과 1936년 7월 비극적 사건을 겪으며 살았다. 그는 신체장애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뒤에 남았고 비밀리에 수도서원을 갱신하였다. 그는 마드리드에서 공화국 군대에 징집되어 전선 의무대에서 일하였다. 잠시 후에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지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불경스럽고 신성을 더럽히는 일들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민족주의 쪽으로 가려 하였지만 부상을 입어서 그의

동료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었다. 그는 즉결 심판에서 총살형을 선고 받았다. 처형전에 그는 그들에게 천주의 성 요한 수사였음을 말하였고 총살대 앞에 서서 소리쳤다: “왕이신 그리스도님 만세 스페인 만세.” 공화국 군인들이 말하였다: “보라, 저기 아주 용감한 사람이 있구나.” 그는 1937년 9월 어느날 총살당했다. 마태오는 24세였다.

발렌시아 공동체

하느님의 종 레온지오 로셀 라보리아

그는 1898년에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다. 15세였을 때 그는 까라반첼 알토에 있는 사도학교에 들어갔으며 1917년에 서원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산타 아구에다, 시엠포수엘로스, 마드리드, 산 보이 그리고 나서 부원장직을 지낸 바르셀로나 등 여러 공동체에서 봉사하였다. 그는 1931년에 말바로소에 원장으로 갔으며 이 일을 두 차례 역임하였다. 1935년 8월 7일에 군대가 위협을 가하며 2시간 동안 그를 심문하였다. 후에 그는 수도원 식당에서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확신하였지만 만일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머지 않아 그들이 나를 쏘아죽일 것이다. 하여튼 나는 신앙과 스페인의 승리를 위하여 내 일생을 바치리라 완전히 확신한다.” 군대는 밤11시에 도착하였고 제임스 형제와 함께 그를 체포하였다. 그는 체포되어 까바냐ل 묘지에서 총살당했다. 그의 나이가 37세였다.

하느님의 종 제임스 오스카 발데스

그는 하바나(쿠바)에서 1891년에 태어났으며 고아원에서 수녀들에 의하여 훈육되었다. 그는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22세의 나이에 시엵

포수엘로스에 있는 수도회에 입회하였고 여기서 초기 시절에 환자들을 간호하면서 보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마드리드에 있는 산 라파엘 병원으로 갔으며 그리고 나서 콜롬비아 보고타의 수도회의 정신 병원으로 갔고 여기서 원장직을 1928년부터 1931년까지 역임하였다. 스페인으로 돌아와서 그는 바르셀로나 공동체에서 부원장으로 봉사하였고 잠시 까라반첼로 갔다가 말바로소로 가서 세탁실 책임을 맡고 있었다. 공화국 군대가 병원을 쳐들어 왔을 때 그들은 그를 영향력있는 수사로 보고 오랫동안 심문하였다. 그는 말하곤 했다: “그들은 하느님께 대항하고 있으나 루시퍼는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수사들이 희생될 것이라 확신하였으며 생존자 중 한 명이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들은 결코 그를 겁에 질리게 하지 못했다.” 그는 8월 7일에 체포되어 총살당했다. 45세의 나이였다.

하느님의 종 크리스토퍼 베레스 델 바띠오

그는 1864년에 발렌시아에서 태어났다. 그는 1887년 시엠포수엘로스에 있는 수도회에 입회하였다. 그는 말기 투병 중이었던 성 베네딕도 메니를 간호하였다. 1936년, 병동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중에, 그는 군대에 체포되어 심문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병원으로부터 300 미터정도 떨어진 곳에서 총살당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왕이신 그리스도님 만세” 였다. 그는 나이 71세였다.

하느님의 종 테안드로 알로이 도메네크

그는 베페로(발렌시아)에서 1872년에 태어났다. 그는 1896년 수도회에 입회하였다. 그가 까라반첼 알토에서 부원장으로 임명된 후에 시엠포수엘로스에 보내졌으며 여기서 병원 농장과 창고들을 돌보면서 많은 개선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바로사에 있는 수도원으로 갔고 여기서 주방과 식품저장실 책임을 맡았다. 그가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군대는 이미 성당 내의 종교적 물품들을 파괴하였다.

군인 중에 한 명이 그 곳에 있는 그를 발견하고서 욕설을 퍼부으며 무슨 일이나고 물었다: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레안드로가 대답하였다. 그 병사는 그를 때리며 총구를 들이대면서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나를 죽인다면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레안드로 형제는 그에게 가해진 불경스러움으로 고통받으며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끌려나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순교에 동참하였다. 그의 나이 63세였다.

하느님의 종 크루스 이바네스 로포스

그는 사비난(사라고사)에서 1886년에 태어나서 수도회에 1905년 입회하였다. 그는 발렌시아에서 봉사하다가 이탈리아로 보내져서 티베르 섬에 있는 수도회 병원에서 요리사로 봉사하였다. 1921년에 스페인으로 되돌아 와서 그는 헤레스 데 라 프론테라에서 봉사하였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발렌시아로 되돌아 갔다. 그의 가족에게 1936년에 방문하는 동안 그의 가족형제들은 그에게 그 곳에 머물도록 설득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발렌시아에 있는 자신의 동료들과 환자들에게 되돌아가야 한다고 고집하였다. 그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 생애에서 그가 가진 유일한 사명은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비록 이것이 목숨마저 희생해야 하는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받겠다고 했다. 군대가 요양소를 점령했을 때 크루스 형제는 그들을 돌보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하지만 그들은 곧 마음을 바꾸었다. 처형하려고 그를 밖으로 끌고 나왔을 때 그들은 그를 무자비하게 구타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총을 쏘고 나서, 그들은 그의 시신을 모독하였다. 그의 나이 50세였다.

하느님의 종 레오폴드 데 프란시스코 비오

그는 1877년에 까라바카(무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수도회에 1896년

에 입회하였다. 그의 첫 번째 소명은 까라반첼 알토에 있는 진료소에서 환자들을 간호하는 것이었다. 여기서부터 그는 바르셀로나, 산보이, 그리고 깔라펠로 갔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발렌시아로 보내어져서 요양소를 위한 헌금을 모금하러 다녔다. 수도원장이 임종하자 그는 몹시 상심하였다. 그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의 자리를 대신하였고 총살대 앞에 섰을 때 그는 외쳤다. 왕이신 그리스도님 만세. 59세의 나이였다.

하느님의 종 펠릭시아노 마르티네스 그라네로

그는 파베르노(알메리아)에서 1863년에 태어나서 시엠포수엘로스에 있는 수도회에 1894년 입회하였다. 그는 수도생활의 대부분을 발렌시아에서 보냈는데 여기에서 말바로사에 있는 수도회의 가난한 신체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집의 구호품을 담당하였다. 이 일을 위해 그는 무르시아, 아라곤, 나바라, 발렌시아 관구들 그리고 바스케 지방으로 다녔다. 이러한 사도직을 하면서 그는 가난한 가족들을 도와주었고 장애가 있거나 병이 든 자녀들을 돌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언해 주었다. 여행 중에 한 번은 말 등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그로 인해 그의 삶 나머지 동안을 절름발이로 살았지만 그의 친절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저해하지는 않았다. 그가 순교했던 때 나이가 73세였다.

하느님의 종 후안 호세 오락예 아이스포르베

그는 오사까르(나바라)에서 1899년에 태어나 수도회에 1926년 입회하였다. 그는 시엠포수엘로스, 까라반첼 알토, 발렌시아에 있는 공동체들에서 봉사하였으며 간호일 외에도 요양소를 위한 모금활동을 하였다. 그의 애정 어린 성품과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군대의 몇몇 군인들조차 존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했으

며 1936년 10월 4일 밤에 총살대 앞에 섰다. 그의 나이 37세였다.

하느님의 종 요셉 미카엘 베냐로야 돌스

그는 포칼(까스펠론)에서 1908년에 태어나 시앰포수엘로스에서 수도회에 1931년 입회하였고 여기에서 그는 말바로사로 가게되었다. 병원이 점령되어 있는 동안 그는 군대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교회 물품들을 구하려고 하였다. 그는 성스러운 물품들을 그가 알고 있는 몇몇 은인들에게 맡기었다. 하지만 그들이 그의 탈출을 도와준다고 하였을 때 이를 거절하였다. 그는 말하였다. 나는 환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비록 이 일로 군인들이 나를 죽일 이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나는 아직도 그들에게 가까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원장 수사의 죽음 이후로 그는 식당 일을 도우라는 명을 받았다. 미사 제구들이 부엌 화로 속으로 삼켜지는 것을 보고 그는 매우 크게 상심하였다. 그들이 그를 끌고가 총살시킬 때 그는 크게 소리쳤다: “하느님의 어머니와 왕이신 그리스도님 만세.” 그의 나이 27세였다.

하느님의 종 뿌블리오 페르난데스 곤잘레스

그는 1908년에 오페로 데 라스 두에냐스(레온)에서 태어났다. 그는 1933년 수도회에 들어갔고 서원을 한 후에 말바로사에 구호품 담당자로 보내어졌다. 요양소 밖으로 일보러 나가지 않을 때면 그는 신체장애 어린이들을 보살피었다. 병든 어린이들을 돌본 후에 그는 병동을 청소하고 군대가 세운 본부들을 청소하곤 하였다. 몇몇 군인들은 그를 좋아해서 그가 탈출하는 것을 돕고자 했으나 그는 그의 자리를 지켰다. 그가 총살당했을 때의 나이는 28세였다.

하느님의 종 아벨리노 마르띠네스 데 아렌사나 깐델라

그는 1898년에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다. 변호사였던 그의 아버지

는 그가 어린 아기였을 때 돌아가셨고 조부모가 그를 양육하였다. 아벨리노는 자선심이 많은 사람으로 유명하였다. 그는 종종 자기가 신딘 신발이나 옷을 벗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곤하였다. 그는 병드신 어머니를 간호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1944년 수도회에 입회하였다. 산보이와 깔라펠에서 잠시 머무른뒤 발렌시아로 옮겨가 여기서 구호품 모금자로 활동하였다. 군대가 요양소를 점령하였을 때 그는 병든 어린이들 곁에 서 있었다. 그가 총살당했던 때가 그의 나이 37세 되던 해였다.

말라가 공동체

산 호세 요양소는 정신병 환자들을 위해서 120병상을 갖추고 1920년에 말라가에서 개원하였다. 공동체에는 11명의 형제들이 있었다. 1936년 7월 18일 말라가로 시민내란이 번져와 130여개의 건물들에 방화를 하였다. 다음 날 모든 수도회들은 수도복을 입는 것을 금지당했고 평복을 입어야 했다. 원장 수사는 각 형제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당장 피신하라고 조언하였다. 하지만 모든 형제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하였다. 8월 중순까지 공화국은 형제들을 심문하였는데 너무 자주 그리고 오랜 기간동안 심문하였다. 모든 종교적 활동을 금하며 세속 위원회가 넘겨받을 것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영국 영사관이 요양소를 방문하여 3명의 영국인 환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한 명의 형제를 동행시켜 지브랄타 해안까지 가도록 주선했다.

8월 17일 약 40명의 군대가 도착해서 전체 공동체와 두 명의 환자를 체포하였다. 마크 형제는 콜롬비아 시민이었기에 석방허가가 떨어졌다. 8월 18일 아침에 원장 수사는 정문 경비원을 보내면서 끌려가 총살당한 형제들의 시신을 찾아보라고 하였다. 경비원은 자전거를 타고 나가 세콘도 형제의 시신을 정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하였고 묘지 벽에 기댄 채로 총살 당한 다른 7명 형제들의 시신을 찾아냈다.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은 위원회가 병원을 운영하는 데 도와야 했던 원장 수사 뿐이었다. 순교한 형제들의 유해는 말라가 대성당에 모셔졌다. 형제들의 성덕과 순교를 조사하기 위한 과정이 1995년 시작되었고 그들의 소청이 로마에 제출되었다.

하느님의 종 실베스터 베레스 라구나

그는 빌라 델 캄포에서 1873년에 태어났다. 그는 13세의 나이에 시엠포수엘로스에서 사도학교에 들어갔고 수도 양성을 받은 다음 1892년에 서원하였다. 그는 말바로사 공동체의 원장으로 임명되었고 또한 까라반첼, 그라나다와 시엠포수엘로스에서 봉사하였다. 그는 두 번 관구 평의원을 지냈다. 그는 칠레에 원장수사로 파견되어 1930년까지 그 곳에 머물렀다. 의료인들 중에 주도적인 비밀공제 조합원들이 많았기에 실베스터 형제가 임명되어 자신의 방식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다. 1931년 그는 로마 티베르섬에 있는 수도회 병원 부속 약국에서 봉사하는 소명을 받았다. 로마에서 3년을 지낸 후 그는 부원장으로서 말라가에 되돌아 왔다. 군대 점령 동안에 그는 공동체 원장을 안전하게 지키는 책임을 맡았다. 그는 1936년 8월 17일에 총살당했다. 그의 나이 62세였다.

하느님의 종 세콘두스 빠스포르 가르시아

그는 1885년 메스퀴텔라스(소리아)에서 태어났다. 그는 15세가 되었을 때 시엠포수엘로스에서 수도회의 사도학교에 들어갔고 수도 양성을 마친 후에 1903년 서원하였다. 그는 시엠포수엘로스, 산 보이, 발렌시아, 빨렌시아와 산타 아구에다에서 봉사하였다. 그는 1928년에 요리사에 임명되어 말라가로 보내어졌다. 그는 말하였다: 나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환자들 가까이 머무를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것을 나누고 싶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

게 도움과 숙식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그는 대답하였다. 나는 결코 공동체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군대가 저녁시간에 그를 체포하러 왔을 때 그는 정원에서 기도하며 걷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찾아 끌고 가서 총살하였다. 그의 나이 52세였다.

하느님의 종 발다사레 델 샤르코 오르귀스

발다사레는 1887년 그라나다에서 태어났으며 1904년 시엠포수엘로스에서 수도회에 입회하였다.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그는 산보이, 까라반첼 알도, 팜벨로나, 바르셀로나, 시엠포수엘로스, 마드리드, 산타 아구에다, 빨렌시아, 발렌시아, 그라나다, 그리고 산뚜르세에서 봉사하였다. 1936년 첫 몇 달 동안 그는 말라가에서 간호일 뿐만이 아니라 병원 약국도 운영하였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 수사들과 함께 남아 환자들을 돌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죽음을 목격한 증인은 그가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증인은 군인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였다: “이 사람이 왕이신 그리스도님 만세라고 외쳤다.” 그의 나이 48세였다.

하느님의 종 고메르신도 산스 산스

그는 알마드론스(구아달라하라)에서 1878년 태어났다. 그는 재단사였으며 군대에 자원입대했다가 필리핀에서 수도회 활동을 보았다. 그가 수도회에 들어왔을 때 나이는 29세였으며 시엠포수엘로스, 그라나다, 무르시아, 발렌시아, 까라반첼, 빨렌시아, 산타 아구에다 그리고 나서 또 빨렌시아에서 봉사하였고 1929년 구호모금자로서 말라가로 이동했다; 그리고 나서 린넨실과 세탁 책임을 맡았다. 군대가 그를 체포하러 왔을 때 그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을 나를 죽이러 왔지만 나는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시신이 다음 날

아침 발견이 되었을 때 그는 기도하는 자세로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었다. 그의 나이 58세였다.

하느님의 종 오노리오 발레스페로스 로드리게스

그는 1895년 오까냐(몰레도)에서 태어났다. 그는 14세였을 때 시엠포수엘로스에 있는 사도학교에 들어갔다, 수련기를 마치고 1914년에 서원하였다. 그는 팔렌시아, 마드리드, 까라반첼, 산 보이에서 봉사하였다. 1922년에 그는 칠레로 가서 산티아고에 있는 수도회의 요양소에서 봉사하였고 1932년 그곳에 간호학교를 세웠다. 콜롬비아에 있는 동안에 그는 칠레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이로 인해서 그의 고향의 한 도로는 그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그는 스페인으로 다시 불러갔으며 말라가에서 봉사하기 위해 갔다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 “이번에 나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가르멜회 수녀들이 그를 자신들의 수녀원에 숨겨주겠다고 하였지만 말이다. 그 날 그는 체포되었으며 고열로 인해 몸져 누워야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옷을 갖춰 입고 나서 처형장으로 끌려가 총살당했다. 그의 나이 41세였다.

하느님의 종 레이몬드 가르시아 모레노

그는 1896년 루세나(꼬르도바)에서 태어나서 수도회를 32살이 되던 해에 입회하였다. 그는 산타 야구에다, 마드리드, 헤레즈 데 라 프론테라, 시엠포수엘로스 및 말라가에서 봉사하였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환자들을 버릴 수가 없다.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빼앗겼다.” 그가 순교하기 며칠 전 그는 팔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군대는 그가 의사 치료를 받도록 허용하지 않았고 옷을 입게 하고 끌고가 총살하였다. 그의 나이 40세였다.

하느님의 종 스파니슬라우스 델 게수 페냐 오헤아

그는 1907년에 팔라베라 데 라 레지나(톨레도)에서 태어났다. 1924년 그는 수도회에 입회하여 마드리드에서 간호 교육을 받았고 시엠포수엘로스에서 사도학교에 다녔다. 그리고 나서 그는 헤레스, 산 보이, 시엠포수엘로스에서 봉사하였다. 그는 1932년 수도회를 떠났으나 6개월 후에 다시 입회하였고 까라반첼 알토에 있는 수련소로 갔다. 시엠포수엘로스에서 잠시 후에 그는 말라가로 보내졌으며 여기서 29세의 나이에 총살대의 총구에 목숨을 잃었다.

하느님의 종 살루스띠아누스 알론소 안토니오

그는 1876년 포르노(까르세라)에서 태어났다. 그는 1894년에 수도회에 입회했으며 바르셀로나, 산 보이, 산타 아구에다, 시엠포수엘로스 및 마드리드에서 봉사하였다. 그는 1903년 수도회를 떠났으나 일년 후 되돌아 왔다. 짧은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병자들을 방문하였고 간호해 주었다. 그는 후에 헤레스, 세빌라, 그라나다, 그리고 말라가에서 봉사하였다. 그의 조카가 그를 숨겨주려 하였으나 그는 거절하며 말하였다: “나는 이 세상에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수도원에 남아 있겠다.” 그의 나이는 60세였다.